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49호 【루계 제2570호】

주체108
(2019)년11월
30일
토요일
음력 11월 4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초대형 방사포시험사격을 참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초대형방사포시험사격을 참관하시였다.

초대형방사포의 전투적용성을 최종검토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진행된 이번 련발시험사격을 통하여 무기체계의 군사기술적우월성과 믿음성이 확고히 보장된다는것을 확증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시험사격결과에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장들은 인민군대의 군사기술적강화를 위하여 올해에만도 그 위력이 대단한 수많은 무장장비들을 개발완성시켜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축하의 인사, 감사의 인사를 삼가 올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세상에 없는 강위력한 무기체계를 개발완성한 희열에 넘쳐있는 국방과학자들은 더욱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조선로동당의 전략적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식의 첨단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연구개발하고 하루빨리 인민군대에 장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계속 억척같이 다져나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여있었다.

본사기자

조국소식

전국보건부문 과학기술성과전시회—2019 진행

전국보건부문 과학기술성과전시회—2019가 25일부터 29일까지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되였다.

《의약품, 의료기구의 국산화》를 주제로 하여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보건부문과 련관부문의 240여개 단위에서 출품한 2 500여건의 의학과학연구성과들이 전시되였다.

전시회기간 과학기술발표회와 지적제품교류도 진행되였다.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참가자들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우수한 과학기술성과들을 창조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의약품과 의료기구생산의 국산화실현에 적극 이바지할 결의를 다졌다.

김일성종합대학 자연박물관과 첨단기술개발원 준공식 진행

민족간부육성의 중심기지이며 주체과학교육의 최고전당인 김일성종합대학에 자연박물관과 첨단기술개발원이 훌륭히 꾸려졌다.

우리 나라의 지하자원과 동식물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을 주는 교육교양거점, 과학연구보급기지로 개건된 자연박물관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표본을 비롯한 1만여점의 각종 표본들이 14개의 부문별전시구역으로 나뉘여 진렬되여있다.

연건축면적이 1만 8 000여㎡에 달하는 첨단기술개발원은 9개의 각이한 연구개발구역들과 토론회실, 공동개발실, 전시실과 같은 학술교류구역, 강의실, 회의실을 비롯한 교육교양장소들을 그쯘히 갖춘 현대적인 과학연구기지, 첨단기술제품개발기지이다.

김일성종합대학 자연박물관과 첨단기술개발원 준공식이 28일에 진행되였다.

본사기자

김일성종합대학 자연박물관

시

위대한 김정은원수 만세

재중동포 김 필

아름다운 전설의 고향
천년백설 떠인 백두산 상상봉에
백마타신 헌헌대장부 오르시여
일사천리 호탕한 그 기세로
천군만마 이끄시고 천하를 호령하니
름름한 자태 소탈하기 그지없고
영웅기개 차고넘쳐 범접할자 감히 없네

극악한 전쟁의 벼랑끝에서
칠색무지개 아롱진 평화의 새 희망
확 끄당겨오시니
거룩한분 우러러 세상사람모두
새시대의 김장군이라 칭송하네

분렬력사에 길이 아로새겨진
지난해 판문점의 그날
민족통한의 분리선을 헌헌히 넘어
억만사람 가슴 뭉클케 하는
크나큰 감동 남기시고
천고의 희망 깊이 새기시면서
밝은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주셨네
더없이 아름다운 래일 약속해주셨네

젊고도 젊으신 희세의 영웅
오늘 조선의 사회주의위업 이어받으시고
강철같은 의지로
그 어떤 강권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자력갱생 위대한 기치 높이 추켜드시고
새로운 경제발전 더욱 크게 도모하시면서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 마련해주시려
온갖 심혈 부으시는분

그 흉금 넓고 깊어 온 세상을 감싸안으신분
저 눈부신 태양과도 같은 찬란한 웃음으로
희망찬 미래 굳게 약속해주신분
세상은 절세의 위인—김정은원수께
그토록 아름찬 기대가 있네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
거룩한 모습 우러러
8천만 백의민족 겨레는 큰 축복 드리네
위대한 김정은원수 만세!

제일 강하신 정치가, 문무를 겸비하신 위인

외국의 벗들 격찬

숭고한 의지, 담대한 배짱을 지니시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외국의 벗들이 끊임없이 흠모하며 칭송하고있다.

로씨야주체사상연구협회대표단 단장 드미뜨리 꼬스쩬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조선은 자기 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조선은 존엄높은 자주의 강국으로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방문기간 조선의 발전모습을 보며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심을 금할수 없었다.

대대로 수령복을 누리는 조선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로씨야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소대표단 단장 와짐 꾸지민은 김정은동지께서는 선대수령들의 뜻을 받들어 조선을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켜나가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정치무대에 등장하신 후 조선에서 일어난 경이적인 사변들을 목격하며 세인은 그이의 세련된 령도력과 특출한 외교실력에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오늘 조선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이 따라배워야 할 본보기로 되고있다.

조선인민이야말로 수령복이 있는 긍지높은 인민이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받는 조선은 앞으로도 눈부신 발전을 이룩할것이다.

김일성김정일기금 회원 조빈은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의 국력은 높은 경지에 올라서고있다, 그이의 외교적수완은 세계를 놀래우고있다, 김정은동지는 문무를 겸비하신 위인이시다고 격찬하였다.

스위스공산주의청년대표단 성원 아라우죠 다 꼬스따 스떼파노 죠쎄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현시대의 가장 걸출한 령도자로 세인의 각광을 받고계신다.

세계에서 제일 강한 정치가이신 그이께서는 령활한 대외활동으로 국제정치정세에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시며 조선의 위상을 만방에 과시하신다.

인류는 머지않아 유일무이한 리상국가로 우뚝 솟은 조선의 모습을 목격하게 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인민사랑이 안아온 바다의 만풍

얼마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8월25일수산사업소와 새로 건설한 통천물고기가공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랭동저장고들마다 차곡차곡 짝 들어찬 물고기들을 바라보시며 그이께서는 물고기랭동블로크들을 보고 금괴를 올려쌓은것 같다고 말한적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그이상 적중한 비유가 없을것 같다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인민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할 그 물고기랭동블로크들이 그이의 마음속에 금괴처럼 안겨온것은 인민을 위한것, 인민을 위한 일보다 더 중요하고 귀중한것이 없었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산업발전에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여러차례 8월25일수산사업소를 찾으시여 물고기잡이의 과학화를 실현하며 가공공정의 기계화, 자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풍어기를 높이 날리도록 깊은 관심을 기울이시였다. 언제인가는 짧은 기간에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어로공들의 편지를 받아보시고 너무도 기뻐시여 사업소를 찾으시여 그들의 수고를 치하하시였고 또 언제인가는 사업소를 찾으시고 만선하고 귀항한 배에도 오르시여 어창에 가득차있는 물고기를 보시고 정말 멋있다고 하시며 수산사업소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자기들의 더운 피와 땀으로 황금해력사창조의 첫 페지를 쓴 위훈의 창조자들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세상에 바다는 많아도 황금해라는 말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수 없다.

황금해.

절세위인의 숭고한 인민사랑과 헌신으로 날로 풍요해지는 조선의 바다이다.

쏟아지는 물고기폭포를 보시며 만시름을 잊으신듯 환히 웃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 그대로이다.

동해어장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너무 기뻐시여 떠나갈 땐 빈배로 가지만 돌아올 때는 배전에 넘친다고 흥겨운 노래가락을 넘기시고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진행된 경제부문 책임일군협의회에서도 고기배를 무을데 대하여 교시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 생애의 마지막시기 인민들에게 차례질 물고기공급에 관한 문건에 수표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주체103(2014)년 11월 한 수산사업소를 찾으시여 하륙장에 펼쳐진 물고기바다를 보고 또 보시며 년간에 쌓인 피로가 다 풀린다고, 너무 기뻐 요즘은 잠도 오지 않는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노래구절에도 있듯이 포구엔 만선의 배고동소리 선창엔 물고기가득이라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는 그이의 모습에는 넓고넓은 바다를 통채로 인민들을 위한 재부로 전변시키고싶으신 절절한 소원이 그대로 어려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양로원들에 신선한 물고기를 정상적으로 공급해주시려 마음쓰시며 하루에 차례질 량과 년간수량이 얼마나 되겠는가를 수첩에 계산까지 해보시였다.

그이의 사랑과 로고속에 전변은 동해에 이어 서해에서도 일어났다.

젓갈을 공업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대규모수산물가공기지인 금산포젓갈가공공장이 서해포구에 현대적으로 건설되여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도모하고있다.

지난해말 이틀동안 련속 동해지구의 수산사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물고기산들을 쌓아놓은것을 보니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정말 좋다고, 대단히 만족하다고 하시면서 매일, 매달 물고기잡이실적을 보고받을 때마다 자신께서도 시간을 내여 어로공들과 함께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고싶은 심정이라고 하시였다.

만선기를 날리며 돌아오는 고기배들, 물고기비린내가 물씬 풍기는 포구, 밤낮으로 물고기 폭포를 쏟아내는 하륙장, 금괴마냥 쌓아올린 물고기블로크들이 가득찬 랭동저장고와 생산자들의 일손이 드바쁜 물고기가공장…

통천물고기가공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황금해의 력사가 계속 창조되는것만큼 반갑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는가고, 올해는 농사도 대풍인데 수산도 대풍이 들겠다고 거듭거듭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바다의 만풍을 안아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 땅에 사회주의바다향기가 차넘치고있다.

본사기자 리 경 월

숭고한 후대사랑속에 나래치는 환상의 세계

무릇 동심은 호기심많은 꿈의 세계, 환상의 세계이기도 하다.

하늘을 훨훨 나는 비행사, 위성을 쏴올리는 과학자가 되고싶기도 하지만 가보고싶은 곳은 또 얼마나 많은 세계인가.

신기한 별나라, 희귀한 물고기들이 노니는 바다가…

그것이 아이들의 지적, 정서적 성장에 도움을 주는것은 사실이지만 말그대로 꿈의 세계이고 동경의 세계일뿐이다.

하지만 실지로 나날이 부푸는 동심의 꿈과 환상같은 세계가 현실로 펼쳐지는 집이 있다. 바로 그 집이 평양교원대학이다.

* *

누구나 선뜻 믿어지지 않을것이다.

6살, 7살또래의 어린이들이 로보트를 설계하고 조립도 하리라고는.

그러나 부속유치원과 부속소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곳 과외교육기지를 찾으면 해설자가 따로 필요없다. 서로 다른 광경들이 모든것을 설명해준다.

단풍잎같은 귀여운 손이 로보트를 조립하는 모습도 신통스럽지만 콤퓨터화면을 주의깊게 들여다보며 멋있고 효률적인 모형착상에 골몰해있는 어린이들의 눈빛은 마치 미지의 세계를 헤쳐나가는 과학자들인양 자못 진중하다. 그런가 하면 조립을 끝내고 가동시킨 로보트가 회전하는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탄성을 올리는 모습은 더욱 기특해보인다. 하기야 자기가 착상한 로보트가 움직이는것을 볼 때의 기쁨을 그 무엇에 비기랴. 아마도 로보트는 동력을 주어 움직일수 있다는데 어린이들을 끄는 매력이 있는가싶다.

결국 로보트를 만드는 과정에 어린이들은 그 구조에 대한 인식과정에서 동력전달원리와 전자공학의 원리도 깨우치는 등 과학기술적인 교육을 받고 외적인 형태와 색갈설계과정에는 미술적이며 조형예술적인 감각과 소질을 발휘하기도 한다.

대학에서 두달정도 로보트종합교육을 받은 8살, 9살나이의 소학교 학생들은 콤퓨터상에서 오토바이, 비행기, 벨트콘베아, 선풍기로보트 등을 엉뚱하면서도 과학적리치에 맞게 설계할뿐아니라 로보트부분품으로 해당 로보트를 만들어 동작시킬수 있다고 한다.

태여나서부터 시작되는 오른뇌계발시기를 놓치지 않고 주산놀이를 통한 지능계발방법을 활용하는 교수사업 또한 흥미진진하다.

주산에 의한 계산을 시작해서 보름정도 지나면 오른뇌에 주산의 영상이 새겨진다. 일단 오른뇌에 주산의 영상이 새겨지면 주산이 없이도 계산을 진행할수 있게 되여 어린이들은 노래가 나오면 청음을 하면서 춤도 추고 시도 읊으면서 복잡한 계산을 동시에 진행한다. 어린이들이 노래 《우리의 국기》, 《조국찬가》를 비롯하여 노래가 울려나올 때 다섯자리이상의 사칙계산도 정확히 해내는것을 보고 초능력이 형성되는것을 느낄수 있다.

뇌세포를 직접 자극하는 손가락운동과 함께 눈, 귀, 입도 동시에 참가하는 주산놀이를 통한 지능계발방법은 이렇듯 강한 주의집중력과 형상적사유능력, 감정정서능력과 창조적능력을 배양해주니 이 교육을 받은 어린이들이 장차 창조형의 인재들로 성장할것은 자명한 리치인것이다.

어린이들을 환상의 세계에 잠기게 하는 가상환경에서의 관찰교육은 또 어떠한가.

실례로 강바닥을 형상한 가상환경에 일단 들어선 어린이는 신비스러운 꿈의 세계에 빨려들어온듯 도무지 발길을 떼지 못한다. 가상세계에 발을 디디기 바쁘게 물면파가 일면서 물고기들이 달아나는가 하면 그 주변에서 노니는 각이한 품종의 희귀한 물고기들의 재주에 심혼이 팔려 실지 강가에 들어선듯 한 착각에 잠긴다. 바다에서 살다가 번식을 위해 강상류로 올라오는 특성을 가진 물고기들도 번식기의 특성에 맞게 암수구별이 되게 만들어졌으니 강이나 호수, 바다에 가지 않고도 물고기들의 특성을 파악하는셈이다.

3차원립체환경현시기를 통하여 임의의 시각에 푸른 하늘에도 훨훨 날아오르고 온갖 새 지저귀는 울울창창한 숲, 금물결, 은물결 쉬임없이 밀려드는 바다가에도 가보며 자연현상들을 생동하게 관찰하는 과정에 상상력도 풍부해질것이니 그야말로 꿩먹고 알먹는 격이다.

어디 그뿐인가. 콤퓨터가 생성한 가상체계에 의해 교실에서도 삼천리금수강산의 가보고싶은 그 어느곳이나 다 가볼수 있으니 현지에 가지 않고도 해당 지역에서 벌어진 력사적사실이나 주요사건등에 대한 어린이들의 상식은 또 얼마나 풍부해질것인가.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어머니교실도 마찬가지이다.

이 교실에서는 총명한 어린이와 심리미발달어린이들에 대한 교육방법, 초등학원 원아들에게 어머니의 사랑과 정을 주는 방법, 어머니들이 가정세간들을 교양수단, 교육수단으로 리용하는 방법 등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을 결합시키는 정황교육을 준다.

이외에 붓글을 쓰면서 그림도 그리고 셈세기도 하며 음악으로 어린이의 종합지능을 계발시키는 방법, 산골마을분교에서도 복식교수를 전자교실에서 할수 있는 방법을 비롯하여 동심세계를 속속들이 파악한 교육방법들은 많다.

같은 교육조건일지라도 어린이들의 지능계발정도는 하나같지 않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지능발달이 조숙형이 있는가 하면 중간형도 있고 간혹 60살이 되여 큰 과학적 발명을 하는 만숙형도 있다. 어린이가 오늘 사고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래일에도 암담하다고 평가하면 그의 지적재능을 키워줄수 없게 된다. 이로부터 착상도입한 어린이지능평가방법 역시 시사적이다.

만화영화, 책읽기를 통한 지능평가를 비롯하여 분야별재능평가방법을 통해 어린이들의 오른뇌발달정도, 소질 등 여러가지 평가를 진행하는가 하면 교육평가실의 로보트가 어린이육체발달과 지능발달사이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초능력형성》을 위한 두뇌발달평가를 내린다.

이런 혁신적인 첨단교육과학과 기술이 매주마다 전국에 속속 일반화되는 동시에 어린이들의 꿈과 포부가 보다 세분화되고있다. 이제 크면 그저 박사, 과학자가 되겠다던 어린이들이 자동차설계가, 풍력발전기설계가, 다용도온실로보트설계가가 되겠다고 자신만만하게 장담한다.

철부지만 같던 아이들의 작은 가슴에 큰 포부가 자리잡은것을 보며 제일 기뻐하는것은 이 나라의 부모들이다. 이 세상 부모치고 자식이 잘되길 바라지 않는 부모는 없는것이다.

지식경제시대에 자식들의 전도를 놓고 생각을 깊이 해온 부모들의 심정을 그대로 헤아려주신분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이시다.

아이들을 제일 사랑하시는분, 아이들을 다 인재로 키우시려고 그리도 마음쓰시는분이시기에 지난해 1월 이 대학을 찾아주시여서는 모든 교원들을 어느 부모나 자기 자식을 마음놓고 맡길수 있는 능력있는 교원들로 준비시켜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신것이다.

꽃이나 나무는 물을 먹고 자라지만 학생들은 지능계발수법을 쓰는 교원에 의해 지능이 발달된다.

앞서 언급된 로보트종합교육, 주산놀이를 통한 지능계발방법, 가상환경에서의 관찰교육을 비롯한 새라새로운 지능계발수법들은 아이들에게 하나를 배워주어도 알기 쉽고 재미나게 원리적으로 배워주며 그들의 지능을 빨리 계발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배워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교육사업에 첨단과학기술을 도입하고 실천실기교육을 많이 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그날에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귀한 지침들을 하나하나 연구하는 과정에 무르익힌 착상과 방법들이다.

진정 아이들을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동이로 키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리상은 그들을 잘 먹이고 곱게 입히고 즐겁게 뛰여놀게 하는데 그치는것이 아니였다. 나라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훌륭한 역군으로 키우는것이다.

아이들의 환희로운 꿈을 키워주시려 그토록 마음쓰시는 그이의 극진하고 다심한 당부를 심장의 박동으로 안고 하나를 통해 열, 백을 알게 하는 현대교육기술을 부단히 개척해가는 교육자들에 의해 오늘도 공화국의 아이들은 지성의 자양분을 한껏 섭취하며 과학적환상의 나래를 활짝 펴고있다.

하기에 이곳을 찾는 세계 여러나라 손님들은 한결같이 대학에서 창조한 교육방법이 세계적수준이라고 감탄을 금치 못한다.

외국의 한 인사는 방문록에 이런 글을 남겼다.

《조선에서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근원을 여기 평양교원대학에서 찾았습니다.》

* *

꿈은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은

근적강화의 장성을 이어가시며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창조와 건설을 적극적으로 벌리고있는 공화국은 방위력강화에도 계속 큰 힘을 넣고있다.

튼튼한 군력이자 국력이고 평화와 번영의 담보이다.

인민군대는 무적의 총대로 하늘과 땅, 바다초소를 철옹성같이 지켜가고있다.

강력한 군력에 국가의 자주적존엄과 불패성, 휘황한 미래가 있기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군력강화를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고계신다.

최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외진 섬초소인 창린도방어대와 외진 바다가기슭에 자리잡고있는 조선인민군 제5492군부대관하 녀성중대를 찾으신것도 군력강화를 위한 애국헌신의 시찰이다.

창린도방어대와 녀성중대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인들의 생활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방어대를 찾으신 그이께서는 지휘부와 중대병실로부터 식당, 콩창고, 온실, 목욕탕 등 여러 대상들을 돌아보시며 군인들의 생활실태를 세세히 알아보시였다. 학교와 유치원실태도 헤아려보시며 군관가족자녀들의 교육문제에 대하여서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녀성중대를 찾으시였을 때에도 침실, 식당, 바다물정제실 등 중대의 여러곳을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아무런 불편이 없이 지내는 녀성군인들의 생활모습을 보시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방어대와 녀성중대 군인들의 군무생활을 세심히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은 최고사령관이시기 전에 인민의 사랑하는 아들딸들을 친자식처럼 돌보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모습이시였다.

섬방어대와 녀성중대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모든 군인들이 조국보위의 성스러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도록 가르쳐주시고 뜨거운 고무격려도 해주시였다.

방어대를 찾으시여 해안포중대 포진지에서 군인들을 만나신 그이께서는 우리 군인들의 높은 정치적자각과 고도의 경각성, 조국수호의지와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조국의 최전방이 굳건히 지켜지고있다고 하시면서 이런 믿음직한 인민군군인들이 있기에 나라의 안전과 인민의 행복이 억척같이 담보되는것이라고 하시였다.

감시소에 오르시여 섬방어대 구분대들의 배치와 전투임무에 대하여 보고받으신 그이께서는 방어대앞에 나서는 과업을 제시하시였고 군인들의 포사격도 친히 보아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인들을 그 어떤 작전과 전투임무도 능히 감당해낼수 있게 훈련을 과학적으로, 실용적으로, 실전의 맛이 나게 더욱 강도높게 시켜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나 육체기술적으로 철저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특히 포병부대, 구분대들에서는 명포수운동의 불길을 계속 지펴올려야 한다고 하시였다.

녀성중대를 찾으시였을 때에도 그이께서는 중대장과 중대정치지도원에게 중대가 2년전 명포수영예를 지니기 위해 투쟁하던 때를 언제나 잊지 말라고,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당에서 안겨준 명포수중대의 영예를 계속 고수하고 빛내일수 있다고 하시면서 중대안에 훈련열풍을 드세차게 일으켜 중대를 그 어떤 목표라 해도 명중탄만을 날리는 명포수중대로 계속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리고 조국보위는 최대의 애국이라고 하시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더 헌신적으로 복무해달라고 당부하시였다.

조국보위와 군력강화의 장정을 이어가시며 인민군군인들을 친부모의 사랑으로 극진히 보살펴주시고 인민군대를 무적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나라의 방위력은 백방으로 다져지고 사회주의건설은 굳건히 담보되고있는것이다.

김 금 혁

자기 힘과 기술로

주체105(2016)년 8월 어느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순천화학련합기업소에 새로 꾸린 아크릴계칠감생산공정을 돌아보시였다.

그곳 과학기술력량과 생산자들은 세계적으로 몇개 나라의 독점물로 되고있는 아크릴계칠감생산공정을 자체로 만들고 도입시험에서 단번성공하였으며 그 믿음성이 확고히 담보된 질좋은 칠감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크릴계칠감생산공정은 자강력제일주의의 고귀한 산물이라고 하시며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자기 힘뿐이다, 자기 힘을 믿고 달라붙으면 그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자기 힘을 믿으면 만리도 지척이고 남의 힘을 믿으면 지척도 만리이다라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은 경제강국을 떠받드는 쌍기둥이라고 하시고 화학공업부문에서는 화학공업의 주체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고, 우리의 자원, 우리의 기술에 의거하는것이 기본이라고, 화학공업을 세계적인 발전추세에 맞게 에네르기절약형, 로력절약형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본사기자

통일의 길에 빛나는 위인의 명언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이끌어올 원동력은 우리의 지혜와 의지이며 힘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명언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이끌어올 원동력은 우리의 지혜와 의지이며 힘이다.》는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한 원동력을 밝힌 강령적지침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명언은 조국통일의 주체는 다름아닌 우리 민족이며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하루빨리 앞당기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것은 우리 민족이 어떻게 투쟁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는것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는것은 더는 미룰수 없는 우리 민족의 사활적인 요구이며 전체 조선인민의 최대의 민족적숙원이다.

오랜 세월 하나의 피줄을 잇고 한강토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이 장장 70여년간이나 둘로 갈라져 분렬의 고통을 당하는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수 없다. 우리 나라에서 분렬은 민족의 의사가 아니라 외세의 지배와 간섭의 산물이며 이 비극을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최대의 민족적과제로 나서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통일은 서로 다른 민족간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민족간의 문제로서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허용할수 없는 조선인민의 내정문제이다.

조선민족은 조국통일의 주인이며 직접적담당자이다. 어떤 외세도 우리 민족내부문제에 끼여들어 간섭하거나 개입할 명분이 없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의 의사와 념원에 맞게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룩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앞당기는데서 그 누구도 우리 민족을 대신해줄수 없는것이다.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조국통일은 그 누구의 승인을 받고 하는것이 아니며 누구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것도 아니다. 외세는 우리 민족이 하나로 합쳐져 강대해지는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은 외세는 북남관계를 저들의 구미에 복종시키려고 하면서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앞길을 한사코 가로막고있다. 하기에 외세추종, 외세공조는 평화와 번영, 통일의 장애물로 되고있다. 외세에 의존하여 그 무엇을 해결하려는것보다 어리석은 짓이 없다는것은 지나온 민족분렬사의 처절한 교훈이다.

조국통일위업실현의 근본방도는 민족자주의 기치밑에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데 있다.

온 민족은 조국통일의 큰뜻을 앞에 놓고 사상과 리념,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그 누구를 막론하고 조선사람이라면 민족의 한성원으로서 통일애국의 한마음한뜻으로 민족대단결의 대하에 합류해나서야 한다.

오직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민족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성업에 특색있는 기여를 함으로써만 조국통일을 앞당길수 있다.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이끌어올 원동력은 우리의 지혜와 의지이며 힘이라는 위대한 장군님의 이 명언은 조국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준 고귀한 명언이다.

온 겨레는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의 길에서 민족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

림명호

통일애국의 려정을 더듬어 (17)

획기적인 민족단합 5개방안의 제시

1980년대 중엽에 공화국정부의 주동적인 조치로 북남대화가 새롭게 열리고 관계개선의 유리한 환경이 마련되였으나 남조선당국자들은 동족대결정책과 전쟁책동에 계속 매달리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대화상대방인 북을 걸고 대결을 격화시킴으로써 분렬을 지속시키고 저들의 정치적위기를 수습하여 장기집권야망을 실현하려 하였다.

전두환군사독재《정권》은 특히 1988년 2월에 《대통령》임기가 끝나게 되는것과 관련하여 《평화적정권교체》의 미명하에 《대통령간접선거제》로 되여있던 당시의 파쑈《헌법》에 의한 재집권을 획책하였다. 이것은 직선제개헌과 사회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강력한 항거에 부딪쳤다.

미국의 새 각본에 따라 군사파쑈도당은 1987년 6월 29일 항쟁에 떨쳐나선 인민대중앞에서 하는수없이 무릎을 꿇고 《직선제개헌》과 《사면복권 및 구속자석방》, 《언론기본법개정》 등을 골자로 하는 《시국수습안》이라는것을 내놓았다. 한편으로 군사파쑈분자들은 《민주화는 하루아침에 이룩되는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애국적진출에 대하여 《종전보다 더 강력히 다스리겠다.》고 위협하여나섰다. 이들은 《올림픽의 안전개최》라는 구실하에 미국으로부터 《F-16》 전투폭격기를 비롯한 새로운 전투기술기재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실전배치하는가 하면 《북의 기습남침》을 운운하며 《다각적인 대비태세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기염을 토하였다.

이러한 사태발전은 남조선인민들의 운명뿐아니라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전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였다.

여기에서 남녘인민들은 남조선에 군사파쑈《정권》이 그대로 존재하는 한 북남대화도, 나라의 통일도 실현할수 없다는것을 더욱 절감하게 되였다.

바로 이러한 때인 1987년 11월 11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련합회의를 열고 《남조선의 현정세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당면대책에 대하여》를 토의하고 조성된 사태하에서 북과 남이 진정으로 힘을 합치고 공동으로 노력한다면 능히 현정세를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에 유리하게 전변시킬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민족단합 5개방안을 담아 남조선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 인민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민족단합 5개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북과 남사이의 민족적단합을 위하여서는 우선 남조선에서 진정한 민주정권이 출현하여야 한다.

민주정권을 세우는것은 북과 남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민족적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첫 출발점이다.

하루밤사이에 민주화의 《웅호자》로 둔갑한 미국이나 군사파쑈세력이 이 문제를 해결할수는 없으며 자진하여 민주주의를 선사하리라고 기대하는것은 환상이다.

남조선인민들은 군사파쑈세력의 폭력앞에 굴하지 말고 그들이 내드는 가짜민주화, 가짜문민정치에 기만당하지 말아야 하며 민주화투쟁을 끝까지 벌려 민주정권을 기어코 쟁취하여야 한다.

둘째로, 북과 남사이의 민족적단합을 위하여서는 대결을 반대하고 서로 단결을 도모해나가야 한다.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유일한 길은 북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의 민주주의력량이 단결하는데 있다.

북과 남사이에 사상과 제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것이 서로 단결하고 통일하는데 장애로 되여서는 안된다.

북과 남사이의 단합을 도모하는데서 가장 긴절한 문제는 《반공》을 배격하는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용공세력척결》을 떠들면서 민주세력을 공격하고 《반공》소동으로 동족사이의 대결을 격화시키는 군사파쑈세력의 책동을 철저히 저지파탄시켜야 한다.

셋째로, 북과 남사이의 민족적단합을 위하여서는 남조선에 민주정권을 세우는 기초우에서 서로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대화가 없이는 북과 남이 서로 접근할수 없으며 북남관계의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수 없다.

우리는 대화와 접촉을 바라는 남조선의 모든 인사들에게 아무때나 래왕의 문을 열어놓을것이며 북과 남으로 흩어져사는 가족, 친척들의 고통을 시급히 덜어주기 위한 주동적인 대책을 강구할것이다.

넷째로, 북과 남사이의 민족적단합을 위하여서는 다가오는 제24차 국제올림픽경기대회문제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해결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반공》을 하지 않고 통일을 지향하는 민주정권이 서고 민주정권하에서 올림픽경기대회를 하게 되면 쌍방이 민족적단합을 도모하는 립장에서 공동주최문제를 신축성있게 협의해결할수 있을것이다.

다섯째로, 북과 남사이의 민족적단합을 위하여서는 무력충돌과 전쟁의 위험을 막고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긴급조치가 우선적으로 취해져야 한다.

전쟁으로 녹아날것은 조선인민뿐이며 덕을 볼것은 외세뿐이다.

우리는 핵전쟁에 절대로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일관하게 견지하여온 평화애호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남조선에 민주정권이 서면 그와 지체없이 무력충돌과 전쟁의 위험을 막고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긴급대책을 공동으로 강구해나갈것이다.

그러한 긴급대책으로서 우선 시험적으로 최소한 제24차 국제올림픽경기대회와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 진행되는 1988년부터 1989년까지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잠정조치를 취할것을 예견하고있다. 평화를 위한 잠정조치에는 전연지대에서의 쌍방 무력의 철수,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의 중지, 지상과 해상의 접촉구역에서 상대방을 향한 총포사격의 무조건금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의 중지, 중립국감시군에 의한 감시조직, 쌍방군사당국자사이의 직통전화개설과 같은 당면한 문제들이 포함될수 있을것이다.

편지에서는 남조선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 인민들은 굳게 단결하여 군사파쑈독재를 종식시켜야 하며 북과 남이 함께 손잡고 반드시 자주, 평화, 통일의 새 력사의 장을 펼쳐나갈데 대하여 호소하였다.

민족단합 5개방안은 조성된 남조선정세의 요구에 맞게 온 민족이 단결하여 조국통일의 길을 함께 열어나갈 획기적국면을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애국적발기, 현실적대책이였다.

하기에 민족단합 5개방안은 그 정당성과 현실성, 공정성으로 하여 내외동포들속에서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남조선파쑈도당은 이에 불안을 느끼고 민족단합 5개방안을 담은 편지를 《불온편지》라고 하면서 강제압수하여 그것이 남조선의 각계 인사들에게 가닿지 못하도록 방해하여나섰다.

하지만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민족단합 5개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북과 남이 힘을 합치고 민족이 단합하여 련방제통일을 실현할것을 강력히 주장하여나섰다.

손화복

수기

랑만과 열정의 삶을 준 고마운 조국 (1)

최로사선생

《할머니이름을 왜 최로사라고 지었나요?》

《그건 모래속의 이슬처럼 귀하다는 뜻이란다.》

근 30년전 여섯살짜리 귀여운 손자의 물음에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었다.

그 총각애가 이제는 철없던 그 시절의 자기 나이만한 딸애를 가진 아버지가 되였다. 그리고 오늘은 할머니를 추억하며 붓을 들었다.

* *

나의 할머니는 김일성상계관인이며 이름난 녀류작가이고 전쟁로병이였다.

할머니는 한생에 수백편의 시와 가사를 창작하였다. 그중에서도 전쟁시기에 창작한 가요 《샘물터에서》는 지금도 온 나라 사람들이 알고 즐겨 부르는 노래이다.

샘물터에 물을 길러 동이
  이고 나갔더니
빨래하던 군인동무 슬금
  슬금 돌아앉네
…
노래의 첫 소절만 불러봐도 젊음과 랑만이 넘쳐나고 절로 춤가락을 펼치고싶은 가요 《샘물터에서》!

사람들은 가끔 이 노래가 전시가요라는것을 잊군 한다. 그만큼 가사의 첫 소절부터 마지막소절까지 수천수만의 목숨을 앗아가는 가렬처절한 전쟁과 어울리지 않게 승리에 대한 신심과 랑만으로 물들여져있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자서전에 이렇게 썼다.

《…전쟁시기부터 나의 창작생활이 시작되였다. 거창한 생활의 거류속에서 체험한 생활이 나를 창작에로 추동하였다.

그 시기 나는 화선수첩에 많은것을 써넣었다. 가사 〈샘물터에서〉는 준엄한 1950년 10월의 그 가을날에 거기에 써놓은 습작품이였다. 이것이 나의 첫 작품으로 되였으며 동시에 나의 한생에서 가장 빛나는 성과작으로, 대표작으로 되였다.》

가요 《샘물터에서》는 이렇듯 엄혹한 전쟁의 환경속에서 숫눈처럼 깨끗하고 소박한 열여덟살 처녀병사에 의해 세상에 태여났다.

하다면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그 랑만이 처녀시절에 누구나 느낄수 있는 그런 감정이였을가?

나는 아니라고 말하고싶다. 나의 할머니처럼 웃음보다 먼저 눈물을, 무지개같은 꿈과 희망보다 먼저 한끼의 끼니를 마련하기 위해 생사를 걸어본 사람만이 온몸으로, 폐부로 느낄수 있는 진실한 감정이라고 생각한다.

할머니는 원래 서울태생이였다.

서울 창덕궁의 긴 돌담을 에돌아 현제동(당시)의 막바지에 있는 오막살이 세집이 바로 나의 할머니가 태여난 집이였다.

생전에 할머니는 나에게 자주 고향소리를 하군 했는데 그때마다 눈물부터 흘리군 했다. 그리고는 《광화문광장을 지나 조금 돌아가면 내가 다니던 학교가 있었는데…》라며 말끝을 흐리였다.

나는 할머니의 고향이야기를 옛말처럼 들으며 창덕궁과 광화문광장이나 세집이라는 귀에 선 이름들을 따라 불러보았고 상상속에 그곳을 그려보기도 했었다.

할머니의 회상에 의하면 나의 증조할머니 석금성은 서울바닥에서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름있는 인기배우였다고 한다.

증조할머니는 1920년대 후반기부터 여러 연극단체의 배우로 활동하면서 관중들의 심혼을 틀어잡는 고운 목청으로 연극의 주제가들을 불렀고 웬간한 연극들에 주역으로 출연하여 인기를 독차지했다.

언제인가 할머니가 간수하고있던 사진을 보았는데 늘씬하고 인물도 고운 증조할머니는 바야흐로 피여나는 아름다운 모란꽃과 같았다.

그러나 예술계의 별로 빛을 뿌리던 증조할머니는 나날이 덧쌓이는 생활난으로 무대를 떠나 가정잡사에 파묻히지 않으면 안되였다는것이다.

그때 어린 소녀의 눈앞에 매일 매 시각 펼쳐지는것은 죽지 못해 살아가는 가족들의 가긍한 모습이였고 들리는것은 지칠대로 지친 어머니의 한숨소리뿐이였다.

그래도 맏딸에 대한 기대가 큰지라 겨우 붙여놓은 학교라는것은 자기 이름까지도 일본이름으로 고쳐야 하는, 말이 조선사람이 다니는 학교이지 왜나라학교나 다를바 없었다.

할머니는 학교문앞까지는 치마저고리를 입고 가고 학교에 들어갈 때는 무릎까지 껑충 올리뜨는 짧은 치마를 입고 들어가던 일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외우군 했다. 그야말로 자기가 조선사람이라는것을 잊고 살아야 하는 암흑의 시절이였다. 그 황량한 대지우에서 어린 소녀는 음달속의 꽃망울처럼 시들어갔다.

하기야 나라없던 그 시절엔 온 민족이 불우한 자기들의 운명을 통탄하였지만 이제 겨우 망울을 터친 연약한 꽃잎과도 같은 소녀에게 있어서 그 피로움은 애써 떠올리군 하는 달콤한 공상이나 랑만적인 꿈으로도 덜수 없는 고통이였을것이다.

그러던 1945년 8월 15일 섬나라족속들의 게다짝소리가 소란스럽게 울리던 이 땅우에 《조선해방만세!》의 목갈린 웨침소리가 터져올랐다.

해방의 빛은 쓰러져가는 처녀의 집에도 따뜻이 비쳐들었다.

가난과 설음에 짓눌려 생기를 잃어가던 봄꿈이 어린 소녀의 가슴속에서 다시금 피여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은 미구에 또다시 침범한 외세의 광풍에 의해 가뭇없이 사라져버렸다.

아름다운것과 정의를 지향하는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사람들은 차츰 근로하는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별천지같은 세상, 농민들은 나라에서 분여받은 제땅에 씨를 뿌리고 로동자들은 주인된 공장에서 건국의 마치소리 힘차게 울려가는 공화국을 동경하게 되였고 목숨걸고 38° 선을 넘기 시작했다.

나의 증조할아버지도 자리를 잡고 인차 데리러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북으로 떠나갔다.

그러자 할머니의 가정에는 《월북자가정》이라는 딱지가 붙었고 홍행극단에서는 나의 증조할머니를 쫓아냈다. 설상가상으로 학교에 다니던 할머니마저 퇴학당하고 말았다.

속수무책으로 있다가는 언제 죽을지 모를 형편이였다. 돈, 어데 가서든 돈을 벌어야 했다.

집안의 맏딸로서 가만히 앉아있을수가 없었던 할머니는 어느날 종로에 있는 극장으로 갔다.

말이 인물심사장이지 녀성으로서의 치욕을 참아내야 하는 그런 곳이였다. 그러나 고생하는 어머니와 굶고있는 동생들 생각으로 온갖 수치를 참아내며 당시로서는 퍼그나 많은 선금을 받아가지고 돌아왔다.

난생처음 적지 않은 돈을 손에 쥐고보니 가슴이 막 활랑거렸다. 벌써부터 눈앞에 너무 좋아 깡충거리는 동생들과 시름이 쌓였던 얼굴에 홍조가 피여오르는 어머니의 모습이 막 보이는것만 같았다.

하지만 소녀의 기쁨은 얼마 가지 못했다. 어머니는 그 돈을 마구 집어뿌리며 갸륵한 딸의 동실한 어깨를 잡아흔들었다.

《네가 정신나갔니? 누가 너더러 그런델 가라고 했니? 누가?》

어머니의 얼굴을 적시며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자 순진했던 소녀는 어쩔줄 몰라 하였다.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그 눈물은 식민지예술인이 당하는 수치와 고통을 말해주고있었다.

《어머니, 내가 잘못했어요!》

며칠후 어머니는 소녀를 불러앉히고 곧 북으로 떠나라고 일렀다.

그때를 회상하며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보슬비가 내리는 서울역두에서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속에 사랑하는 어머니와 작별하였다. 그날은 1948년 3월 3일경이였다. 어머니는 이 땅에서 더는 살길이 막막하니 어서 북으로 가라고, 나에게 동생들을 잘 돌보라고 당부하였다. 자기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좀 나으면 인차 뒤따라서겠다고 했다.

나는 그것이 나의 가장 가까운 혈육이면서도 내가 제일 사랑하던 어머니와의 영원한 리별로 될줄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할머니는 그때를 잊지 못해 시 《내 어머니의 모습》에서 이렇게 썼다.

찬비는 하염없이 내리는데
눈물도 하염없이 흘리며
스산한 내 고향 서울역두
  에서
헤여진 내 어머니
그날에 떠나는 차창가에서
멀어져가는 어머니의 모습
가슴깊이 새기면서도
그것이 이토록 긴 리별이
될줄
철없는 소녀 어이 다 알
  았으랴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
  가 바뀌여
장장 40여년
그 모습은 뽀얀 안개속에
  서있는
조각상처럼 남아있어
설음이 가득 담긴 그 눈빛
서글픈 입가에 애써 떠돌
  던 그 미소
자꾸만 희미해지려는 그
  영상
소스라쳐 놀라며 내 기억
  다잡을 때면
이 가슴에 눈물이 아니라
피가 흘러라
…

이렇게 헤여진 어머니를 할머니는 끝내 만나보지 못한채 세상을 떠났다.

지금도 수십년전에 헤여진 어머니가 그리워 며칠밤을 뜬눈으로 밝히던 할머니의 모습이 눈에 삼삼 어려온다.

사람들은 이런 의혹을 품을수 있다. 그런 가슴속아픔을 가지고있는 나의 할머니가 어떻게 되여 《샘물터에서》와 같은 랑만적인 작품을 쓸수 있었는가고.

나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말에 의하면 공화국의 벅찬 현실은 그대로 시와 노래였고 설음밖에 몰랐던 작은 가슴에 새로운 꿈과 희망을 안겨주었다는것이다.

《누나, 정말 돈을 내지 않고도 계속 학교에 다닐수 있나?》

할머니와 함께 들어온 작은할아버지(최호섭)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매일이다싶이 이렇게 묻군 했다고 한다.

《그래, 여기는 우리가 살던 남조선이 아니란다.》

할머니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울려다보는 동생을 꼭 껴안아주었다.

이렇게 할머니는 고급중학교를 졸업하고 김일성종합대학 외국어문학부(당시)에 입학하여 배움의 나래를 한껏 펼칠수 있었다.

김일성종합대학소리가 나온김에 한마디 한다면 할머니는 대학시절에 나의 할아버지(김준도)를 알게 되였다고 한다.

할머니는 나를 볼 때마다 할아버지의 모색을 많이 닮아 꼭 할아버지를 보는것만 같다고 말하군 했다.

언제인가 할아버지에 대해 묻는 나에게 할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네 할아버지는 보기 드문 락천가였고 재간둥이였단다. 당시 대학 예술소조에서 지휘자로 있으면서 작곡, 편곡의 다재로 이름을 날렸던 다방면적이고 활달하면서도 정열적인 청년이였다. 전쟁이 일어나자 대학적으로 군대에도 제일먼저 탄원했었지. 그리고 휘파람을 잘 불었는데 어디서나 그 소리만 들으면 너희 할아버지라는걸 알 정도였단다. 내가 시인이 된것은 너희 할아버지때문이란다. 원래 난 소설을 쓰고싶었는데 네 할아버지가 자꾸만 〈로사는 가사를 쓰고 난 거기에 곡을 붙이면 얼마나 리상적이겠소.〉라고 하는 바람에 시인이 됐단다.…》

참으로 공화국은 꿈속에서도 그려보던 리상향이였다.

바로 그품에서 받아안은 사랑과 정이 너무도 컸기에 할머니는 외로움을 몰랐다. 그래서 생사를 판가리하는 싸움의 나날에도 전우들에게 노들강변 봄노래를 불러주고싶어했고 진달래꽃 꺾어주며 승리의 날 또 만나기를 원한것 아니겠는가.

김예림
(최로사의 외손자)

무모한 군사적허세가 초래할 후과

이해도 하루하루 저물어가는 지금 남조선의 군부호전세력들이 반공화국대결소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남조선군부가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미해군 주도의 다국적련합해상훈련인 《퍼시픽 뱅가드》(《태평양선봉》)에 참가한것은 이를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이다.

미국의 이지스순양함 《챈슬러스빌》호와 군수지원함, 잠수함을 비롯하여 10여척의 전투함선과 해상순찰기 《P-8A》편대, 오스트랄리아의 이지스구축함 《호바르트》호, 카나다의 호위함 《오타와》호, 남조선해군의 구축함 《최영》호와 해상작전직승기가 동원되여 팜도주변해상에서 벌어진 이번 다국적련합해상훈련은 태평양상에서 발생할수 있는 《우발적상황》을 가정한 련합기동훈련, 실탄사격훈련, 대함 및 대공방어훈련, 대잠수함작전훈련 등으로 진행되였다.

짙은 화약내를 풍기면서 진행된 《퍼시픽 뱅가드》훈련이 공화국과 주변국가들을 겨냥한것으로서 조선반도와 지역의 긴장을 더 한층 격화시키고 전쟁위기를 조장하는 위험한 군사적도발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번 미국주도하의 련합해상훈련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패권을 쥐려는 기도밑에 철두철미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압박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 이 지역에서의 잠재적적수들을 힘으로 제압하기 위한데 기본을 두고 벌어진것은 이에 대한 실증이다.

남조선호전세력들이 《퍼시픽 뱅가드》훈련참가에 대해 숨기고있다가 언론을 통해 관련사실이 드러나자 급기야 훈련참가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인정하였다고 한다.

남조선호전세력들이 무모한 미국주도의 전쟁연습에 참가한것은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열망에 또 한번 찬물을 끼얹는 반민족행위이다.

지금 온 겨레는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이 깃들기를 기대하고있다.

민족의 이러한 지향과 념원에 도전하여 남조선호전세력들이 《년례적》, 《방어적》의 미명하에 《명칭》을 변경하면서 남조선에서 합동군사연습을 그칠새없이 벌려온것도 성차지 않아 태평양한가운데에 나가서까지 미국의 불장난에 편승해나서는것은 그야말로 민족의 넋도 평화의지도 없는 쓸개빠진 망동이다.

저들의 외세추종정책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 모처럼 마련되였던 대화와 평화의 기류가 날아갈 위기에 처한 이 시각까지도 주대없이 미국의 침략전쟁의 돌격대로 끌려다니는것을 보면 남조선군대란 한갖 외세의 꼭두각시, 전쟁소모품, 대포밥에 불과하다.

최근 미국은 저들의 리익을 위해 남조선에 《방위비》명목으로 엄청난 돈을 수탈하려 하고있다. 미국의 이러한 날강도적인 요구에 남조선의 각계층은 엄청난 돈을 뜯어갈 생각을 하지 말고 남조선강점 미군을 철수시킬것을 요구하고있다.

민심의 요구에 응할 대신 엄청난 《방위비》를 강박하는 상전에게 항변은커녕 《한미동맹》의 썩은 바줄을 놓칠가봐 전전긍긍하며 미국이 하라는대로 죽을지살지 모르고 부나비처럼 불장난판에 뛰여드는 남조선호전세력들의 몰골이야말로 실로 가련하기 짝이 없다.

남조선호전세력들이 미국을 등에 업고 부려대는 무모한 군사적허세가 불러올것은 조선반도의 긴장격화이고 그로하여 차례질것은 수치스러운 파멸뿐이다.

본사기자 김응철

체질화된 외세의존정책이 빚어낸 반민족적행위

혹시나했더니 역시나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불과 몇시간 남기고 남조선이 《조건부 연기》결정을 한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지난 8월 남조선을 《백색국가》(안보우방국가)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한 일본의 결정에 항의하여 현 당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기로 하였을 때만 해도 어느 정도 《결기있는 정권》처럼 보였던것은 사실이다. 적어도 현 당국자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종료를 앞둔 시각에 충청남도에 있는 어느 한 공장준공식에 참가하여 《반도체부품을 자체로 생산할수 있다.》고 할 때만도 《결연한 반일의지》에는 변함이 없는듯도 했다.

하지만 딱 여기까지였다.

남조선의 력대 《정권》들이 그러했듯이 현 당국 역시 미국에 굴복함으로써 협정종료는 연기되고말았다.

남녘민심에 대한 배신이고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외세에 팔아먹는 용납 못할 반민족적범죄가 아닐수 없다.

이로써 그동안 남조선당국이 늘어놓은 숱한 말은 빈말이였고 저들이 《초불정권》이 아니라 미일상전의 주구, 현대판식민지노예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적라라하게 드러났다.

미국이 남조선당국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종료》를 결정한다면 《스스로의 안보를 저해할것》이라고 하면서 부단히 압박을 가해왔다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협정종료시한부를 앞두고 미국의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을 비롯한 고위외교안보당국자들이 《방위비분담금》증액과 남조선강점 미군감축 등을 협정파기 철회와 결부시키면서 강박한 사실이 그 뚜렷한 실례로 된다.

결국 미국의 눈에 날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에 남조선당국은 《조건부적인 협정연기》결정을 내리고만것이다.

남조선당국이 《국익우선외교의 좋은 실례》라며 저들의 결정을 애써 합리화하려 하고있지만 이것은 《외세굴종의 좋은 실례》에 대한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알다싶이 미국은 저들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그가 누구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나라이다.

더우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말하면 미국이 추진하고있는 미일남조선군사동맹체계의 한부분으로서 그 첫째가는 목표가 다름아닌 공화국이라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결국 이번 협정연기결정으로 입만 벌어지면 떠드는 현 남조선당국의 《평화》와 《남북관계개선》이라는것이 혀끝의 소리에 지나지 않는것임을 스스로 립증해주었다.

남조선 각계에서 남조선당국이 일본의 경제침략에 불매운동과 초불투쟁으로 맞선 국민들의 의지와 념원을 외면하고 《굴욕결정》, 《국민무시결정》, 《평화위협결정》, 《적폐부활결정》을 하였다고 하면서 력사에 죄되는짓을 한 현 《정부》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있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한것이다.

미국이 이제 또 어떤 압력을 가하든 남조선당국은 미국이 하라는대로만 하게 되여있다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초불민심을 배반하고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외세에 팔아먹은 남조선당국의 죄행은 도저히 용서받을수 없다.

박철남

남조선 각계가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무조건 폐기를 요구

남조선의 민주로총이 22일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기로 한 당국의 결정을 비난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일본이 경제보복으로 남조선을 압박한 리유가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배상할데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시키고 침략범죄를 은폐하기 위한것이라는것을 모르는 국민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며 재벌과 외세에 굴복하였다고 성명은 규탄하였다.

일본에 군사정보를 넘기면 평화를 팔아넘기는것으로 된다고 하면서 성명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모든 국민은 《정부》의 대결정책을 반대한다고 주장하였다.

당국이 굴욕협정을 파기하지 않는다면 각계층 민중과 련대하여 중단없는 투쟁에 나설것이라고 성명은 선언하였다.

23일 시민사회단체들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무조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론평을 통해 군사정보보호협정연장은 《정부》를 믿었던 국민에게 실망감을 주었다고 단죄하였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미국이 저들의 전략적리해관계에 따라 남조선을 미일동맹에 끌어들이기 위한것이라고 단체는 까밝혔다.

미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강박한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하면서 단체는 일본이 경제보복조치를 철회한다고 해도 조선반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협정을 결코 용납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도 국민의 의사에 역행하며 협정연장을 발표한 당국을 비난하는 론평을 발표하였다.

론평은 《정부》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한것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였기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도 이 협정은 반드시 종료되여야 한다고 론평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시

비참한 결말

김태룡

아무리 타산을 주산알처럼 튕겨보아도
굴종이 최선이요 최고의 방책이였던게지
끌끌내 선택하였구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종료연기
곤혹의 늪에서 허적이다 붙잡은것이
그래 수치스런 굴복이더냐

협정종료를 떠들던 기세는 허세였더냐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던 공약은
까치배바닥같은 흰소리
혹시가 역시라더니
대미, 대일굴종의 너절한 추태
추하기 그지없는 이 생존수단 갈데 없구나

죽을죄에도 할 말은 있다더니
《천만다행》, 《원칙있는 외교의 승리》
당치않은 력설의 실꾸리 풀어내누나
갖가지 변명의 채색으로
패자가 승자인체 역스럽게 떠들어대누나

다름이 없다 조금도
친미, 친일에 환장한 보수패거리들
민족의 넋을 내던진 역적쓰레기들과
외세의 턱에 구차한 명줄을 걸고
민심을 배반한 추악한 그 망동은

친일적폐의 오물 내던질 눈꼽만 한 용기도
민족의 리익, 존엄을 지킬 자신마저 없는
현대판식민지노예의 그 가긍함
민의를 역행한 그 범죄의 대가
얼마나 쓰라리고 처절한지 알기나 하느냐

남의 눈에 눈물내면
제 눈에 피가 난다 하였거늘
민심배반으로 온 남녘이 분노로 끓게 한
그 죄악 톡톡히 치르게 되려니
비발치는 저주규탄에 피할수 없다
비참한 후회의 결말은

단평

할줄 아는것이란

요즘 남조선의 항간에서 나도는 말이 있다.

정치가라면 금기해야 할 3가지 행동에 관한 말이다. 그것인즉은 《삭발, 단식, 의원직사퇴》이다. 그것도 그럴것이 삭발한 머리칼은 다시 자라나는것이요, 단식하다 쓰러지면 병원에 실려가 다시 살아나기때문이다. 《국회》의원직사퇴 역시 대부분 한갖 말로 끌나는것이 남조선정치사의 관례이다. 그러니 그 무슨 목숨을 내걸듯이 소란을 피우며 하는 《삭발, 단식, 의원직사퇴》라는것이 실제에 있어서는 한갖 여론조성용광대놀음인것이다.

그런 유치하고 기만적인 놀음을 너무나 많이 보아오고 이에 신물이 날 지경이 되였는데 《자한당》과 그 대표라는것이 하라는 일은 안하고 추운 이 계절에도 단식놀음을 또다시 벌려놓았으니 남녘민심이 침을 뱉을만도 하다.

역시 할줄 아는것이란 민심을 우롱하는 추한짓뿐이다.

어제는 삭발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그 머리카락이 조금 자라니 이제는 단식을 한다고 야단법석이다. 그래도 죽는것이 무서운지 단식전날에는 영양제주사까지 맞았다고 한다.

황교안이 단식철회요구조건으로 내든것 또한 너무 황당하여 사람들의 쓴웃음만 자아내고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고 《공수처》설치를 하지 말며 《선거법》개정안을 철회하라는것이다. 신통히도 남조선인민들이 하나같이 요구하는것들과는 정반대되는 궤변이고 망언들이다. 그럼에도 그것을 당국이 받아들이라며 단식놀음을 벌리고있으니 얼마나 철면피한가. 뭘 사주지 않으면 학교에 안 가겠다며 부모에게 떼쓰기하는 철없는 아이도 이보다는 훨씬 나을것이다. 그래도 아이는 제 부모 귀한줄 알고 엄마품에 매달리는데 정치를 한다는 제1야당의 대표라는자는 인민들은 개, 돼지로 여기고 저 하나의 권력야욕밖에 추구하는것이 없으니 정치인은 고사하고 어이 사람이라 하랴.

오죽하면 남조선민간에서 《경력은 화려해도 〈정치초년생〉인 사람을 제1야당 대표에 앉혀놓으니 할줄 아는것이란 장외투쟁, 삭발, 단식밖에 없다.》는 비난이 울려나오겠는가. 영양제까지 맞았건만 호화스러운 생활만 하다보니 단식 며칠만에 병원에 실려간 황교안, 그에게 이제 남은것은 정치인의 감투를 벗어던지는 일뿐이다. 황교안이 《국회》의원은 아니니 사퇴할것은 당대표직밖에 없을것이다. 얼마전 황교안이 래년에 있을 《총선》에서 지게 되면 사퇴하겠다고 떠들었는데 그때까지 갈것이 없이 당장 사퇴해야 《정치인》의 용기있는 행동이라 해야 할것이다.

한복순

적폐청산광화문초불문화제 진행

23일 오후 6시 서울의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광화문초불련대와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주최한 《〈세월〉호참사 전면재수사, 검찰개혁, 적폐청산 광화문초불문화제》가 진행되였다.

초불문화제는 《한국대학생진보련합》의 공연들과 주관단체들의 발언으로 이루어졌다.

발언자들은 《바로 어제 지소미아가 재개되면서 분노와 실망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하나되여야 적폐청산을 이뤄낼수 있다. 하나가 되여야 적폐청산의 견지에서 지소미아도 종료시킬수 있다. 적폐청산을 하는데서 미국과 일본이 방해된다면 그들에게도 제대로 말할줄 알아야 한다.》라며 적폐청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광화문을 적폐세력으로부터 되찾을 때까지 함께 할것이다. 11월 30일, 검찰개혁, 적폐청산, 공수처설치를 위해 함께 하자.》라고 호소했다.

한 발언자는 《국민들의 삶과 민생을 뒤전에 놓는 적폐들은 지금 다시 자신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 무슨짓이든 하고있다. 이들이 이렇게 날뛸수 있는것은 검찰과 언론에 수많은 적폐가 남아있기때문이다.》라며 적폐들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본사기자

날로 높아가는 반미기운

최근 남조선의 여야정당들과 각계층속에서 《방위비분담금》증액을 강박해나서는 미국의 날강도적행태를 반대하는 투쟁기운이 날로 높아지고있다.

이러한 속에서 남조선주재 미국대사 해리스는 지난 6일과 7일 야당의원들을 자택으로 불러다놓고 다짜고짜로 50억US$의 《방위비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서 미국의 주장을 강압적으로 내리먹이였다.

한편 미국무성과 의회의 고위인물들은 남조선여야당의 원내대표들을 미국으로 끌어들여 《미국은 세금으로 해외안보에 기여하느라 자국민을 위해 해놓은것이 없다.》, 《앞으로 역할분담은 미국만 지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방위비분담금》증액을 로골적으로 강박하였다.

이것은 남조선을 한갖 저들의 식민지로, 돈주머니로 여기는 미국의 횡포성과 오만성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이다.

남조선의 수많은 각계층 인민들은 2002년 나어린 녀중학생들을 백주에 장갑차로 무참히 깔아죽인 미제침략군의 살인만행을 규탄하여 거리거리를 초불로 밝히며 대중적인 반미투쟁을 힘차게 벌리였다. 2008년 미국이 미친소병위험이 있는 자국산 소고기 수입을 남조선에 강요하고 리명박 《정권》이 그에 굴종하여 미국산 소고기들을 마구 끌어들일 때에도 인민들의 반미기운은 급격히 고조되였었다.

남조선인민들에게 갖은 불행과 재난만을 강요해온 미국이 오늘에 와서는 50억US$에 달하는 엄청난 《방위비분담금》을 내라고 강박하고있으니 미국의 전횡에 남녘의 각계층 인민들이 분노를 금치 못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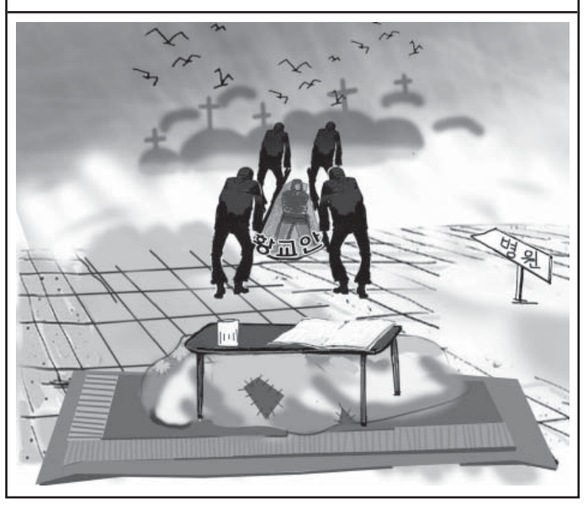
민주로총과 《한국진보련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을 비롯한 50여개의 운동단체들은 최근 《미국대사가 일제시대의 왜놈총독인가.》, 《우리는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다.》, 《이는 주권강탈이자 혈세강탈》이라고 비난하면서 반미초불집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련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과 150여명의 시민사회단체인사들도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이 우리 국민들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태도를 더는 용납할수 없다.》, 《미국으로부터 주한미군주둔비와 기지사용료를 받아내야 한다.》, 《미국의 강도적행태가 계속된다면 초불국민들은 불평등한 한미관계와 주한미군의 존재자체를 재정립하는데 힘을 모아나가게 될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의 강도적인 《방위비분담금》증액을 반대하는 남조선 각계층의 정당한 투쟁은 시간이 갈수록 고조되고있다.

최은정

만평

저승길



극심한 생활난과 50억 US$

최근 미국이 남조선에 《방위비분담금》으로 현 《방위비분담금》의 5배에 달하는 50억US$를 요구하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을 비롯한 각계 단체들과 주민들은 곳곳에서 련일 항의집회를 가지고 《동맹이냐? 날강도냐!》, 《단 한푼도 못 준다. 돈 없으면 집에 가라》 등의 구호를 웨치며 미국을 단죄규탄하고있다.

50억US$.

미국이 수만명에 달하는 미군을 남조선에 주둔시키면서 해마다 빼앗아가는 《방위비분담금》은 하늘에서 그저 떨어진 돈이 아니라 남조선인민들의 혈세이다.

1년내 피땀흘려 번 돈을 강제로 수십억US$나 내놓으라고 하니 세상에 이보다 더한 강도가 어디에 또 있겠는가.

지금 남조선은 최악의 경제위기에 시달리고 인민들의 생활난도 갈수록 극심해지고있다.

공식적으로 등록된 실업자만도 110만명이라고 하는데 50억US$이면 매 실업자에게 4 500여US$씩 돌아간다.

현재 남조선의 가계부채는 무려 1조 4 300억US$에 달한다고 한다. 이처럼 엄청난 빚더미우에 올라앉아있는 남조선인민들에게 미국은 더 큰 빚더미를 들씌우려 하고있는것이다.

어디 이뿐인가.

지금 남조선에서 대학생들이 엄청난 학비난에 시달리고있음은 공인된 사실이다. 돈때문에 과외로동을 하는 대학생들이 부지기수이고 무거운 학비부담에 견디지 못해 중퇴하는 대학생들도 많다.

그런데 미국이 강요하는 50억US$로는 《국립대학》의 경우 100만명,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근 50만명에 달하는 대학생들의 등록금문제를 해결할수 있다.

남조선의 자살률은 세계에서 손꼽히며 주요자살리유가 생활고이다. 2018년 한해동안에만도 3 390명이 경제적문제로 자살하였다.

돈이 없어 먹고살 일이 막막하여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귀중한 목숨을 스스로 끊고있는데 미국이 50억US$의 자금을 내라고 강박하니 이것이 배가 고프면 새끼이고 《친구》이고 마구 해치는 승냥이의 행태와 무엇이 다른가.

김철성

세상에 부럼없어라

12월 3일은 국제장애자의 날이다.

1992년 10월 유엔총회 제47차회의에서 앞으로 매해 12월 3일을 국제장애자의 날로 제정하고 장애자들을 위한 활동을 심도있게 벌려나가도록 하였다. 유엔이 국제장애자의 날을 제정한것은 장애자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식과 관심을 높이고 장애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며 그들이 정치와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장애자문제는 여전히 국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

날로 강화되는 장애자보호사업

오늘 공화국에서는 장애자들이 국가의 혜택속에 사회정치적권리와 자유, 리익을 건강한 공민과 똑같이 보장받으며 아무런 불편을 모르고 복받은 삶을 누려가고있다.

이 땅에는 장애자라는 부름과 함께 불리워지는 이름들이 수없이 많다. 장애자보호법, 장애자학교, 장애자체육대회, 장애자예술공연, 장애자의 날, 장애자통로, 장애자뻐스, 장애자열람실… 꼽기에도 아름찬 장애자들을 위한 시설들과 조건들이 어딜 가나 훌륭히 갖추어져있다.

이 모든것들은 결코 하루아침에 생겨난것이 아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1946년 6월 《북조선로동자,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에서 로동으로 인한 불구자나 직업으로 생긴 병에 의하여 근무할수 없는 사람들의 생활조건보장대책을 세워주시였고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부상당한 영예군인들을 비롯한 공로자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그들의 생활을 따뜻이 돌보는것을 공화국정부의 시책으로 제시하시였다.

그리하여 나라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전화의 나날 총과 탄약, 한개의 군수공장이라도 절실히 필요하였지만 불구가 된 사람들을 위한 교정기구공장이 일떠서 생산을 시작하였다. 이 하나의 사실을 놓고도 공화국에서 장애자들을 위한 국가적 관심이 얼마나 큰가를 잘 알수 있다.

1959년 9월에는 각 도들에 롱아학교와 맹학교들이 꾸려져 장애어린이들도 무료교육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게 되였고 뒤따라 장애자들을 위한 기능공학교가 나와 다양한 업종의 로동활동에 참가할수 있는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따사로운 손길아래 1998년에 조직된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의 사업에서도 중점은 첫째도 둘째도 장애자들의 건강을 돌보고 책임적으로 보살펴주는것이다.

새로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 제2장 제14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여있다.

《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교정기구, 삼륜차, 안경, 보청기, 자전거 같은 장애자에게 필요한 보조기구생산공급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계획적으로 생산공급하여 장애자의 보조기구수요를 제때에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보조기구는 쓰기 편리하게 설계하고 질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공화국에서는 장애자들의 정신육체적기능회복을 위한 네바퀴차, 눈초음파기, 교정기구를 만드는 사업이 국가부담으로 진행되고 장애자들을 위한 회복치료설비들도 훌륭히 갖추어주고있다.

그리고 6월 18일을 장애자의 날로 정하고 해마다 이날을 계기로 장애자들을 사회적으로 더 잘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광범히 진행하고있다.

장애자들이 사회적로동에 참가할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고 그들의 체육, 예술활동을 통한 문화정서생활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 예술적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하고있다.

최근에는 청각장애자들의 특성에 맞게 사용이 편리하고 내용이 풍부한 손말학습프로그람 《우리 동무》(1.0)를 개발하여 리용자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장애자들이 아무런 불편을 모르고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사랑의 손길은 장애자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있는 현대적인 문수기능회복원이며 장애자뻐스, 과학기술전당의 장애자열람실, 평양양로원의 장애자통로 등에 이르기까지 속속들이 슴배여있다.

장애자들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보통사람들과 꼭같은 사회적권리를 향유하도록 온갖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는 공화국의 품속에서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존엄을 당당히 누려가고있는 장애자들이다.

고마운 손길아래 꽃펴나는 꿈과 희망

자고로 장애자라고 하면 불행의 대명사로 되여왔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장애자들은 사회적보호는 고사하고 극심한 차별속에 폭력과 학대의 희생물로 되고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모든 장애자들이 희열과 랑만에 넘쳐 자기들의 예술적소질과 재능을 활짝 꽃피워가고있다.

장애자들은 일반사람들과 육체적조건이 다른것으로 하여 그들의 예술활동이 사람들에게 안겨주는 감화력은 매우 크다.

몇해전 평양장애자교류단이 영국과 프랑스를 방문하여 공연할 때였다. 공연에서 출연자들은 사회주의조국의 품속에서 예술적재능을 활짝 꽃피워가는 자기들의 행복한 모습을 성악과 무용, 기악등 다채로운 종목들에 담아 감명깊게 펼쳐보였다.

시력장애자, 청각장애자, 지체장애자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세련되고 능란한 기악연주솜씨, 황홀한 예술의 세계에로 이끌어가는 우아한 춤률동을 본 영국의 한 인사는 《장애자들이 전문예술인들 못지 않게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춘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구김살없는 이들의 모습에서 우월한 장애자보호정책이 보장되는 조선의 현실을 보았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프랑스의 한 인사도 《조선의 장애자들의 훌륭하고 재치있는 예술적기교를 보면서 너무도 감동되여 눈물을 흘렸다.》고 흥분된 심정을 터놓았다.

비록 몸은 불편해도 세상에 부럼없는 자신들의 밝고 명랑한 생활을 노래춤에 담아 펼쳐가고있는 장애자들속에는 가야금명수인 공훈예술가도 있고 나어린 무용배우도 있으며 전도유망한 성악가들도 있다.

그리고 장애자 및 애호가 탁구경기와 장애자 및 애호가 사격, 활쏘기경기, 장애자수영경기를 비롯한 국내경기들과 국제장애자올림픽경기대회, 런던장애자올림픽경기대회, 아시아청년장애자경기대회, 국제탁구련맹 아시아장애자탁구선수권대회와 같은 국제경기들에도 참가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는 공화국의 장애자들이다.

어찌 그뿐이랴. 과학기술전당에서 나라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할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며 탐구의 나래를 펼쳐가는 사람들속에는 장애자들도 있다.

참으로 정열에 넘치고 래일에 대한 락관과 희망으로 가슴들먹이는 모습이 아닐수 없다.

하기에 이 나라의 장애자들 누구나 가요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제일로 사랑하며 즐겨 부르고있다.

장애자들이 심장으로 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 그것은 장애자들모두를 한품에 안아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드리는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이며 가슴속에 품은 꿈도 희망도 활짝 꽃피워주는 은혜로운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화같은 찬가이다.

오현주

즐거운 기악전습을 받으면서

중국 연변대학 예술학원 주임인 재중동포 리홍관이 쓴 조국방문인상기를 《백두-한나》 잡지 2019년 8호에서 입수하여 아래에 소개한다.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연변대학 예술학원 교원들과 학생들, 연변가무단 교향악단의 민족기악연주가 11명으로 구성된 민족음악연주단은 조국의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에서 단기전습을 다녀왔다.

우리일행은 7월 27일 이른아침 부풀은 심정으로 목적지인 평양으로 출발하여 같은 날 12시에 평양국제비행장에 도착하였다.

나는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을 맞으며 처음으로 조국을 방문한 후 두번째로 오지만 다른 성원들은 모두 처음으로 조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였다.

하지만 우리모두의 마음은 하나같이 들떠있었다. 평양국제비행장에 도착하자 안내원선생이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지내던 친구마냥 해맑은 미소로 우리를 반겨 맞아주었다.

우리는 전용뻐스를 타고 평양시내로 향하면서 잘 정리된 도로들과 웅장화려한 고층건물들, 아름다운 꽃들과 가로수들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며 《지금껏 들어오던것과 완전히 다르다.》며 감탄에 감탄을 이어갔다.

평양시내에 들어선 우리 일행은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찾아 정중히 인사를 올리였다.

이어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위치한 호텔에 도착하니 마치 제 집에 들어서는듯한 심정이였다. 호텔의 직원들이 먼길을 갔다가 돌아오는 친혈육들을 맞아주듯 상냥한 억양과 따뜻한 미소로 한사람한사람을 맞아주었던것이다.

다음날 우리는 그토록 기대해왔던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에 도착하였다. 정문에 나와 우리를 맞이하는 전공교수선생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기량전습을 시작하였다.

기량전습일정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전공수업을 받고 오후 15시부터 17시까지 개인연습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수선생님들은 약속이라도 한듯이 오후시간은 개인연습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고 연습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지도를 해주었다.

이렇듯 진정어린 교수선생님들의 태도에 우리일행은 깊은 감동을 받아 호텔에 돌아와 너도나도 흥분하여 그날그날의 수업과정을 이야기하군 하였다.

한편 우리일행은 교수선생님들의 지성어린 수업을 받은 동시에 짬시간을 내여 평양시내의 여러곳을 돌아보았으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인민의 나라》와 피바다가극단의 5대혁명가극중 명곡, 명장면묶음공연도 관람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방문하면서 온 겨레와 진보적인류가 어찌하여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그토록 흠모하는가를 가슴깊이 깨달았으며 개선문과 주체사상탑, 김일성종합대학과 평양교원대학, 만경대학생소년궁전, 평양지하철도 등 참관을 통하여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조국의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과 눈부신 발전모습을 한몸가득 느낄수 있었다.

또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피바다가극단의 공연은 우리일행의 눈물을 자아내며 뼈속깊은 곳까지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명작이였다.

누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은 항상 빨리 지나가는 법이라고 했던가.

우리를 태운 비행기가 평양에 도착한것이 방금전인것만 같은데 어느덧 떠날 시간을 눈앞에 두고 일행은 아쉬운 심정을 누를길 없었다.

곧 작별해야 할 안타까운 심정으로 마지막수업을 마친 우리일행은 그동안 전공수업을 맡아주었던 교수선생님들과 눈물을 억제하지 못하며 기념사진을 남기였다.

우리일행은 헤여지기 아쉬워 뻐스창밖으로 연신 손을 저으면서 래년에도 꼭 다시 찾아오리라 다짐을 했다.

본사기자

세계와 경쟁하려는 높은 목표밑에

-평양피아노합영회사에서-

피아노는 건반타현악기로서 1709년에 처음 만들어졌으며 많은 개량을 거쳐 발전하여왔다.

음향관계의 과학적인 타산과 정교한 기계장치들로 만들어진 발전된 악기인 피아노는 아름답고 풍부한 음량과 은은하면서도 힘있는 울림으로 사람들에게 류다른 정서와 감흥을 안겨준다.

피아노는 음량이 풍부하고 강약의 변화를 주기 쉬우며 페달로 음에 여러가지 효과를 주어 악기의 음악성을 보다 높여줄수 있고 화성악기와 선률악기의 두 요소를 겸하고있어 음악연주실천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악기로 쓰이고있다.

평양피아노합영회사에서는 피아노를 많이 생산하여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피아노의 종류에는 그랜드피아노(눕힌형피아노)와 아프라이트피아노(세운형피아노)가 있는데 국내에서 널리 리용되고있는 아프라이트피아노의 대부분은 평양피아노합영회사에서 제작한 것이다.

넓은 부지면적을 가진 평양피아노합영회사에는 피아노생산에 필요한 생산공정들이 흐름식으로 갖추어져있다.

1988년 2월에 창설된 때로부터 30여년간 이곳 회사에서는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보다 합리적인 경영전략을 세우고 노력하여 줄기찬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회사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국내산 원료와 자체의 기술로 세계적수준의 피아노를 생산할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려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창조적지혜를 합쳐 자동조종에 의한 습식건조로를 훌륭히 일떠세움으로써 목재건조의 질을 훨씬 개선하였다.

그리고 스프링, 철심, 발디디개를 비롯하여 피아노생산에서 수입에 의존하던 10여가지의 부분품들을 자체로 생산하고 수지사출기도 창안제작하여 여러종의 수지부분품들도 자체로 만들었다.

뿐만아니라 정조피로기를 자체로 생산하여 피아노음색의 변형을 막아주고 음질을 훨씬 개선하였다.

회사에서는 북부고산지대에서 자라는 가문비나무를 비롯한 목재들과 세계적으로 공인된 우수한 자재들, 높은 기술기능을 가진 로동자들의 섬세하고도 완벽한 일본새로 피아노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있다.

이곳 회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아오는 피아노전시장이 있다.

이곳에서 풍부한 음량과 화려한 음색을 갖추고 연주감각이 예민한 피아노들을 돌아본 음악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은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든 피아노제품들이 세계적수준이라며 저마다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고 한다.

전시된 피아노제품들마다에는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 기울인 평양피아노합영회사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애국의 마음이 뜨겁게 슴배여있었다.

평양피아노합영회사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세계적수준의 피아노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진혁

중국을 방문하였던 장애자예술단의 귀환공연중에서 (2019년 10월)

≪우리의 향기가 제일이다≫

평양역전백화점에서 지난 11일에 개막된 전국화장품전시회가 18일에 폐막되였다.

평양화장품공장, 신의주화장품공장, 평양향료공장, 룡악산비누공장을 비롯한 수십개 단위가 참가한 전시회에는 930여종에 13만 7 000여점의 화장품, 80여종의 향료제품이 출품되고 화장품공업부문에서 이룩된 60여건의 가치있는 연구성과 자료들이 제출되였다.

갖가지 화장품들이 짝 들어찬 화려한 전시대, 곳곳에서 풍기는 향긋한 냄새가 전시회장을 찾는 참관자들의 기분을 흥그럽게 해주었다.

역시 화장품전시회인지라 참관자들의 대부분이 녀성들이였다. 그들은 자기 기호에 맞는 화장품을 저마끔 고르느라 여념이 없었다.

제일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은 《은하수》화장품과 《봄향기》화장품전시대였다.

《우리 평양화장품공장에서는 이번 전시회에 460가지에 5만여점에 달하는 〈은하수〉화장품을 출품하였습니다. 그중에는 유라시아경제동맹의 인증을 받은 31가지 화장품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날로 높아가는 녀성들의 수요에 맞게 화장품의 가지수를 더 늘이고 질도 계속 높여가겠습니다.》

전시회장에서 만난 김현평양화장품공장 지배인의 말이였다.

이 공장에서 전시한 개성고려인삼살결물, 물크림을 비롯한 일반화장품들과 염색약을 쓰지 않고도 몇분이면 머리칼을 까맣게 물들이는 염색크림이며 눈주위, 입주위, 목부위에 따르는 미백미안막과 같은 화장품들은 모두 국내산 원료로 질이 좋게 만든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의 인기를 끌었다.

평양화장품공장에서는 전시회기간에 사람들의 체질을 즉석에서 분류한데 기초하여 얼굴의 어느 부위에 어떤 화장품을 발라야 보다 효과적인가를 모의해주는 자동분장모의기구까지 설치하여 봉사해주었다.

피부영양강화에 효과적인 불로초엑스, 저분자콜라겐, 저분자히알루론산을 미생물배양법으로 제조하여 만든 화장품들을 내놓은 신의주화장품공장의 《봄향기》화장품도 많은 녀성들이 찾고있었다.

최순화 신의주화장품공장 과장은 여러해전 유럽의 이름난 화장품과의 대비분석에서 월등한것으로 평가된 《봄향기》화장품들에 얼마전에는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발명가증서와 금메달이 수여되였다고 하면서 이번에 로화방지기능이 높은 불로초화장품을 새로 출품하였는데 녀성들속에서 수요가 높다고 말하였다.

참관자들의 호평을 받은것은 《은하수》와 《봄향기》 화장품만이 아니다.

금강산합작회사에서 출품한 《금강산》화장품은 개성고려인삼을 주성분으로 하고 40여종의 희귀한 천연식물추출물과 생물공학적유효성분들을 배합함으로써 로화를 방지하고 피부의 탄성을 높여주며 보습, 미백, 주름개선효과가 뛰여난 다기능성화장품이다.

그중에서도 달팽이점액과 참대수액을 첨가한 달팽이화장품은 천연보습막을 형성하여 부드러운 피부로 가꾸어주는것으로 하여 녀성들의 관심을 끌었다.

향련기술교류소에서는 감초추출물, 포도씨추출물, 아마씨기름과 같은 효능높은 영양제들을 첨단기술로 배합한 밤크림을 개발하여 출품하였고 평양향료공장에서는 분비나무, 생당쑥, 창포, 향꿀풀, 박하 등에서 질좋은 천연향료물질들을 추출하고 그것을 제품화하여 출품하였다.

룡악산비누공장과 봉화비누공장에서는 갖가지 물비누와 샴푸, 린스를 비롯한 여러가지 제품들을 내놓았다.

《질좋은 화장품들이 너무 많아 미처 고르지 못하겠습니다.》

《아름다와지고 젊어지고싶어하는것이 우리 녀성들의 심정입니다. 우리의 향기가 넘치는 우리의 화장품으로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어가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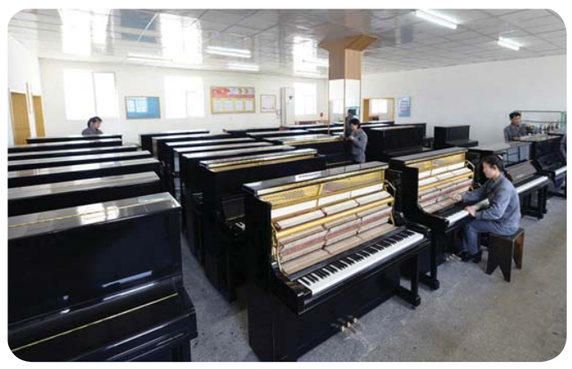
…

전시회장을 찾은 참관자들의 목소리였다.

《우리의것이 좋다.》, 《우리의 향기가 제일이다.》, 이 말속에 녀성들이 미처 골라쓰지 못할 정도로 다종다양한 화장품들이 경쟁적으로 쏟아져나오고있는 공화국의 화장품공업의 발전면모가 그대로 비껴있었다.

이번 전국화장품전시회는 나라의 화장품공업발전을 더욱 힘있게 추동하는데서 또 하나의 의의깊은 계기로 되였다.

본사기자 김춘경



이름난 포도술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사리원포도술공장을 찾아서-

얼마전 기자는 새로 개건현대화된 사리원포도술공장을 찾아 취재길에 올랐다. 사리원시내를 벗어나느라니 눈앞에 드넓은 포도밭이 안겨왔다. 알고보니 사리원포도술공장에 원료를 보장해주는 포도밭이였다.

넓은 포도밭 한가운데 있는 공장구내에 들어서니 한 철용지배인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는 공장에서 사리원에서 나는 포도를 원료로 하여 포도술과 단물을 비롯한 여러가지 제품을 생산하고있다고 하면서 공장에 깃든 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주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장을 여러차례 현지지도하시면서 공장을 위생학적요구에 맞게 깨끗이 관리하고 질좋은 포도술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고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사리원포도술공장현대화와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몸소 풀어주시였다.

한철용지배인은 공장이 개건현대화됨으로써 생산능력을 훨씬 끌어올리면서도 제품의 질을 높일수 있게 되였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였다.

그의 안내를 받으며 통합생산조종실에 들어서니 포도술생산의 모든 공정을 한눈에 볼수 있었다. 우리는 여기서 공장의 정남혁연구사로부터 포도술생산공정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들을수 있었다.

그에 의하면 선별공정을 걸친 포도가 제경파쇄기와 착즙기를 거쳐 1차발효공정으로 넘어가 포도속의 당분이 알콜로 전환된다고 한다. 또한 2차발효공정에서는 1차발효공정때 생긴 유기산이 젖산과 탄산가스로 분해되여 알콜의 산도가 낮추어지며 랭처리공정과 려과공정 그리고 1년간의 저장 및 숙성공정 등을 거쳐 포도술이 생산된다는것이였다.

이어 우리는 포도술생산공정을 돌아보았다. 생산공정이 무균화된 원료전처리공정, 발효공정, 포장공정을 비롯한 현장들에서 우리는 인민생활향상에 기여하려는 이곳 종업원들의 높은 열의를 엿볼수 있었다.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공장의 종업원들은 해당 단위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각종 설비들을 제작설치하고 생산공정의 무균화와 생산과 경영활동의 과학화를 실현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자체의 힘으로 기본생산건물을 비롯한 모든 건물들을 번듯하게 개건 및 건설하고 분석실, 제품견본실 등도 그쯘하게 꾸려놓았다.

한철용지배인은 생산능력이 훨씬 높아진데 맞게 포도원료기지에서도 과학적인 포도품종선택과 재배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원료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생산능력도 높아지고 현대화도 실현된것만큼 포도술의 맛과 질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나가겠다는 결의를 피력하였다.

공장건물을 나서는 우리의 시야에 포도밭이 다시 안겨왔다. 때가 아니여서 흐뭇한 포도작황은 볼수 없었지만 다음해 가을이면 또다시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릴것이다. 상큼한 포도향기, 포도술향기가 금시 풍겨오는것 같았다.

본사기자 김철

누구나 맛보는 련어료리

공화국에는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여러가지 료리전문식당들이 많다.

평양시에만 보아도 산물고기를 가지고 료리를 만들어 봉사하는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이 생겨나 련일 손님들로 흥성이고있다.

평양랭면으로 온 나라에 소문난 옥류관에도 료리전문식당이 있다. 이밖에 평양초밥전문식당, 이딸리아료리전문식당, 강냉이전문식당 등 고유한 민족음식과 세계의 이름난 료리들을 봉사하는 식당들로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고있다.

보통강반에 자리잡은 평양련어료리전문식당도 사람들이 즐겨 찾는 식당의 하나이다.

평양련어료리전문식당은 인민들에게 맛좋고 영양가높은 물고기를 먹이시려고 늘 마음쓰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사랑속에 일떠선 급양봉사기지이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 사랑하는 인민들을 위해 초인간적인 의지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조선동해에서 대서양련어양어가 성공했다는 보고와 함께 바다에서 처음으로 자래운 10kg이 넘는 련어를 보게 되시였다.

현지지도의 길에서도, 쉬기밥을 드시면서도 언제면 우리 인민들에게 련어를 맛보게 할수 있겠는가고 그리도 많이 물으시면서 온갖 대책을 세워주신 장군님이시였다. 련어를 쓸어보시고 꼬리도 만져보시며 자신께서 몸이 불편하지 않으면 이 련어를 번쩍 들어올리고 우리 인민들이 이제는 련어를 먹게 되였다고 세계에 대고 소리높이 웨치고싶다고 하시였다.

그 사랑속에 평양련어료리전문식당도 일떠서게 되였던것이다.

련어는 사람의 원기를 회복시키고 당뇨병과 급성간염, 비뇨기계통질병치료에 효과적인 성분들을 가지고있으며 로화를 방지하고 암예방에 효과적인것으로 하여 고급어족으로 되고있다.

특히 대서양련어는 기름지고 맛이 좋으며 영양가가 높고 성장속도가 빠르므로 세계적으로 수요가 매우 높다.

《우리 식당에서는 180여가지의 련어료리들을 봉사하고있는데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맛이 좋다고 합니다.》

이곳 식당의 변분옥소장이 하는 말이였다.

련어로 만든 료리가지수가 그렇게 많은가고 묻는 기자에게 변분옥소장이 련어탕, 련어회국수, 련어초침, 련어알초밥, 련어배살랭채, 련어빠다철판구이, 련어대가리튀기, 련어매운전골, 련어배살뼈튀기… 하고 꼽아가는데 끝이 있을상싶지 않았다.

련어는 대가리로부터 꼬리, 뼈에 이르기까지 버리는것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

이곳 식당에서 처음부터 련어료리를 잘한것이 아니였다. 처음에는 료리사들이 련어료리에 대한 경험이 없다나니 련어의 고유한 맛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교훈을 찾은 변분옥소장은 료리사들이 과학기술보급실을 통하여 료리기술자료들을 많이 보고 배우도록 하였다.

배운데만 그친것이 아니라 실천속에서 료리수준을 높여나갔다. 료리사들만이 아니라 봉사원들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료리사가 되고 심사원이 되여 참가하는 료리품평회를 자주 조직하였다.

그 과정에 새 료리들이 많이 창안되였다. 김성순주방장이 창안한 련어고리튀기료리도 그중의 하나이다.

점차 이 식당의 료리가 정말 맛있다는 인민들의 목소리가 높아갔다.

외국인들도 평양련어료리전문식당의 료리를 맛보고는 《련어료리가 발전되였다고 하는 나라들보다 더 고유한 맛을 내고있다.》, 《진귀한 련어료리를 평양에서 맛보니 놀랍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오늘 평양련어료리전문식당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

동해의 향기가 물씬 풍겨오는 진귀한 련어료리를 맛있게 드는 인민들의 모습에서 힘을 얻으며 련어료리를 더 맛있게 하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고있는 이곳 식당종업원들이다.

본사기자 황 금 숙

통련어은종이구이

조선의 국견 풍산개품평회－2019 진행

조선의 국견 풍산개품평회－2019가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와 유원지총국의 공동주최로 19일과 20일 중앙동물원에서 진행되였다.

수의축산부문, 동물학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풍산개를 기르고있는 주민들, 각지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품평회에는 각 도(직할시) 품평회들에서 선발된 70여마리의 풍산개가 출품되였다.

품평회에서는 예비심사, 기본심사, 전문가심사, 종합심사, 최종심사결과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였다.

평양시 대성구역 갑문동, 량강도 김형권군 읍 등지의 주민들이 내놓은 풍산개들이 호평을 받았다.

도(직할시)별 종합순위에서는 황해북도, 함경남도가 우수하게 평가되였다.

품평회기간 풍산개의 표준특성과 순종보존에서 나서는 문제에 대한 강의도 있었다.

본사기자

12월의 절기와 민속

대설과 동지는 24절기가운데서 12월에 드는 절기들이다.

대설은 한해치고 눈이 가장 많이 내리는 시기를 일러오는 말로서 양력으로 12월 7일이나 8일에 든다.

예로부터 대설에 눈이 많이 내리면 다음해에 풍년이 들고 그해 겨울은 푸근할것이라는 말이 전해지고있다.

이 시기에 우리 선조들은 추운 겨울이지만 농기구들을 만들거나 수리하고 거름모으기를 진행하는 등 다음해농사차비를 착실하게 하였다.

동지는 겨울에 다 이르렀다는것을 일러오는 말로서 양력으로 12월 22일이나 23일에 든다. 동지날에는 한해가운데서 해가 제일 늦게 뜨고 일찍 지는데 따라서 낮이 제일 짧고 밤이 제일 길다.

민간에서는 동지가 음력으로 11월 초순에 들면 애동지, 초순이 지나서 들면 로동지라고 하였는데 나이를 하루라도 먼저 먹고 빨리 크고싶어하는 아이들은 애동지를 특별히 좋아하였다고 한다.

동지날에 해먹은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푹 삶은 팥에 흰쌀과 물을 두고 쑨 동지죽(동지팥죽)을 들수 있다.

동지죽에는 반드시 수수 또는 찹쌀가루 등을 가지고 크기는 새알만 하고 동그랗게 빚은 새알심(오그랑이)을 넣군 하였는데 북쪽지방에서는 주로 찰수수가루를, 남쪽지방에서는 찹쌀가루 등을 리용하였다.

동지죽을 쑬 때 다른 새알심들보다 큰 새알심을 몇개 만들어넣어 아이들이 먹게 하였는데 큰것이 차례지는 아이는 복을 받는다고 하였다.

동지죽을 먹으면서 한해를 돌이켜보기도 하고 이웃들과 서로 나누어들면서 화목을 도모하는것도 우리 민족의 오랜 풍습의 하나였다.

올해에 대설은 12월 7일이며 동지는 12월 22일이다.

본사기자

겨울철민속놀이 몇가지 (1)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겨울철에 썰매타기, 팽이치기, 제기차기, 널뛰기 등 다채로운 민속놀이들을 즐겨하였다.

▷ 썰매타기

어린이들이 얼음판이나 눈우에서 썰매를 타는 운동놀이이다.

썰매를 타고 눈우를 달릴때는 말을 탄것 같다고 하여 《설마》라고 부르던것이 점차 발음이 변하여 근대시기부터 썰매로 부르게 되였다.

썰매타기는 어린이들의 성격과 심리적특성에 맞는 겨울철운동놀이이다. 썰매타기는 어린이들이 추위를 이겨내고 몸단련을 하는데 좋을뿐아니라 용감성과 민활한 동작을 익히는데도 유익한 놀이이다.

▷ 팽이치기

팽이를 돌리면서 노는 어린이들의 민속놀이로서 고구려시기부터 계승되여왔다.

팽이치기는 평탄한 땅이나 매끈한 얼음판에서 여러명의 어린이들이 모여 누구의 팽이가 더 오래 돌아가는가를 겨루기도 하고 팽이끼리 부딪치게 하여 누구의 팽이가 더 오래 돌아가는가를 경쟁하기도 한다.

팽이치기는 겨울철 어린이들의 몸단련에 좋고 사고력도 발전시킬수 있는 좋은 놀이로서 지금도 널리 진행되고있다.

▷ 제기차기

엽전같이 납작하고 무게있는 물건에 종이나 짐승털로 술을 붙여 만든 제기를 차면서 노는 어린이들의 운동놀이이다.

제기차기는 주로 겨울철에 많이 하였는데 세나라시기부터 전해지고있다. 《동국세시기》에서는 제기는 큰 탄환과 같은것인데 거기에 꿩의 깃을 꽂아가지고 두사람이 마주서서 다리힘을 겨루면서 제기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련속적으로 차는 사람이 잘하는것으로 된다고 하였다.

한사람씩 혹은 여럿이 편을 갈라 할수도 있는 제기차기는 몸의 균형적발전과 몸단련에 좋은 영향을 주는 재미있는 놀이이다.

▷ 널뛰기

고임목을 중심에 놓은 긴 널판의 량끝에 각각 한명씩 올라서서 공중으로 오르내리기를 엇바꾸어 진행하는 민족체육종목이다.

전해진데 의하면 봉건적구속으로 마음대로 바깥출입을 할수 없었던 녀성들이 밖을 내다보려고 담장결에 널을 놓고 뛰였다고 한다. 널뛰기는 먼 옛날부터 오랜 전통을 가지고 보급되여왔다. 널뛰기는 설비가 간단하고 넓은 장소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도 방법이 단순하여 어린 처녀들로부터 가정부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즐길수 있는 놀이이다.

본사기자

낮잠 자는데서 주의할 점

우선 낮잠은 앉아서 자지 말아야 한다. 낮잠인 경우에도 반드시 누워서 자야 몸이 거뜬하다.

만일 앉아서 자면 뇌의 피공급이 줄어들면서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책상에 얼굴을 묻고 잠간 눈을 붙이기 좋아하는데 이런 자세에서는 눈이 압박되고 또 습관되면 눈이 붓고 근시가 심하게 올수 있다.

다음으로 낮잠시간을 바로 정해야 한다. 낮잠은 식사후 30분 지나서 자는것이 좋다.

점심식사를 하자마자 누우면 위안에 음식물이 차있고 소화기관이 운동상태에 있기때문에 소화기능에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낮잠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서는 안된다.

한편 억지로 낮잠을 자서는 안된다. 낮잠을 자겠다고 잠자는 약을 써서는 안되며 저절로 잠에 드는것이 좋다.

또한 사람마다 낮잠이 다 좋은것은 아니다. 실례로 비만증환자나 혈압이 낮은 사람, 피순환계통질병환자들이 낮잠을 자면 몸에 해롭다.

끌으로 혁띠를 조인 상태에서 낮잠을 자지 말아야 한다. 낮잠은 대체로 점심식사후에 자게 되는데 이 시간은 위가 음식을 한창 소화시키는 때이다.

위는 소화액을 분비하는 외에 끊임없이 꿈틀운동을 하는데 음식물이 들어오면 이 운동은 더욱 세진다. 그러므로 혁띠를 지나치게 조이면 소화액분비에 영향을 주어 위의 운동과 소화기능에 부정적영향을 준다.

본사기자

고추의 매움도평가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습성을 가지고있는 우리 겨레는 오랜 옛날부터 고추를 재배하여 식생활에 즐겨 리용하였다.

사람들의 식생활에 널리 쓰이고있는 고추의 대표적인 맛은 매운맛이다. 고추는 매운맛에 먹는다.

매운 고추품종을 널리 재배하여 식생활에 적극 리용하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고추의 매움도에 대한 분석을 과학적으로 하는것이다.

세계적으로 고추의 매운 정도를 분석하는데서 널리 쓰이고있는 방법은 맛감각에 의한 평가방법이다. 이 방법을 보면 검사하려는 마른 고추시료를 에틸알콜에 넣어 방안온도에서 하루밤동안 놓아둔다. 그러면 매운맛물질인 카프사이신류물질들이 거기에 풀려나온다.

그다음 려과액을 5% 사탕용액으로 희석한다.

5명의 맛전문가가 이 희석액을 일정한 량씩 맛보면서 그중 2명이 매운맛을 더는 느끼지 못하게 되면 희석을 그만둔다. 그때의 희석배수값에 《SHU》(스코빌)이라는 단위를 붙여 검사한 고추시료의 매움도로 한다.

지구상에는 매움도가 수십만스코빌지어 수백만스코빌에 달하는 고추도 있다.

그런 고추는 100명분에 해당한 국을 끓일 때 한개만 넣어도 매운맛을 내게 되여있다.

세계적으로 매운 고추는 대체로 더운 지방에서 재배되고있으며 생육기일도 길다.

그러나 그런 고추도 온실에서 재배할수 있다.

매운 고추품종을 육종하여 생산에 받아들이게 되면 고추밭면적도 줄일수 있다.

본사기자

화가 백은배

병풍에 인물, 산수, 새 등을 머리칼처럼 가느다란 선묘로 섬세하게 그렸다는 자료는 그의 정력과 높은 예술적기량을 잘 말해준다.

소폭의 수묵담채와 《꽃속의 팔가》는 꽃이 피여있는 나무가지에 한마리의 팔가가 입을 벌리고 지저귀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작품은 한붓에 청색, 갈색 등을 묻혀 몰골법으로 그 미묘한 색채적변화를 능숙하게 살림으로써 명랑하면서도 산뜻한 느낌과 현실감을 자아낸다. 이러한 색채처리는 장승업을 거쳐 조선봉건왕조말기 화단에서 즐겨 씌여진 색에 대한 미적정서였다.

이밖에 백은배는 《해상군선도》를 비롯하여 많은 작품을 남기였다.

백은배의 창작은 18~19세기에 성행했던 인민적이며 민족적인 풍속화의 명맥을 이어나가는데서와 몰골법의 전통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의 화가인 백은배는 80고령에 이를 때까지 손에서 붓을 놓지 않았으며 인물, 풍속, 산수, 꽃과 새 등 모든 종류의 그림을 다 잘 그렸다고 한다.

《홍약루속회인시록》에 의하면 그는 특히 묵련을 잘 그려 나라에서 여러번 상을 받았다고 한다.

그의 대표작인 《강가를 지나는 나그네》는 병풍처럼 둘러싸인 절벽을 끼고 흐르는 강기슭의 오솔길을 따라 시동과 하늘소를 탄 량반이 가다가 인기척에 놀라 날아가는 한쌍의 물새에 눈길을 돌리고있는 순간을 그린 작품이다. 그림에서 화가는 길손들의 얼굴표정과 몸가짐 그리고 물새들의 모습을 통하여 순간적인 계기와 그들의 인과관계를 능히 짐작할수 있게 하고 인물들의 섬세한 심리적변화까지 비쳐보이면서 호젓한 강가의 정경을 실감있게 형상하였다.

그의 작품들가운데서 《백납병》(1896년)도 잘 알려져있다.

사화

만리이역에 가서… (3)

글 조 허 림, 그림 리 성 일

송석은 홍도사에게 그림을 주어 보낸 후 그해 겨울은 굶어죽지 않겠다고 아득바득 애쓰는 안해에게 얹혀 근근히 지냈는데 그 이듬해 봄 어느날 저녁무렵 별안간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여 앞이 캄캄해지더니 그만 맹인이 되고말았다.

아마도 지내 못 먹고 못 입은 오랜 생활고와 량심도 인정도 없는 병든 세상이 빚어낸 참극이리라. 아니면 그 부채의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좁고 어둑침침한 방안에 푹 박혀 온갖 힘과 넋과 눈정기를 모조리 쏟아부은 후과일것이다.

화가에게 있어서 특히 눈은 생명 못지 않게 귀중하다. 눈먼 송석의 삶은 화가로서 끝장이 났다. 자기의 손때묻은 화필이며 벼루, 종이 등을 더듬더듬 찾아 어루만지며 앞 못 보는 눈을 슴벅이는 송석의 모습은 차마 볼수 없었다. 송석의 불행은 여기에만 그치지 않았다.

송석이 실명한 뒤 며칠 안되여 그의 안해 김씨가 시름시름 앓더니 한달이 못 가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말았다. 아마도 극도의 생활난에 부대끼던 몸에 남편이 눈까지 멀고보니 그 심화가 너무나 큰데서 온 불행이였으리라.

눈잃고 안해잃고 의지가지 없게 되였지만 모진것은 사람의 목숨이다.

송석은 이제는 웅치고 뛸 수도 없는 기구한 운명의 절벽에 다달았다. 누가 죽 한모금 끓여줄 사람도 없으니 이것저것 볼게 없다고 생각한 그는 눈밝았을 때 그려두었던 그림 몇장을 들고 지팽이에 의지하여 더듬거리며 이전에 좀 알던 장사군을 찾아갔다.

《주인장, 나는 이 모양으로 페인이 되였소. 이 지경이 되여가지고서야 무슨 체면을 차릴수 있겠소. 이 그림이 소용이 안되더라도…》

차마 말끝을 맺지 못하며 긴 한숨을 내쉬는 송석을 쳐다보던 장사군이 《아 그러시오. 참, 안됐소이다. 어찌다가 별안간에 안맹하였단 말씀이요. 참, 가엾소이다. 그림이야 어쨌든지 요기나 하셔야지.》 하고 돈냥이나 쥐여주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며칠씩 끼니를 에우며 지내였다.

송석이 이러한 곤경에서 하루이틀 지내는데 하루는 그의 집 문앞에서 두런두런하는 여러 사람들의 말소리가 나더니 《이리 오너라, 송석선생 계시냐?》 하고 찾는다.

그들은 이웃나라에서 돌아온 홍도사와 춘파였다. 그들은 짐군에게 지워온 돈자루를 마루청이 휘게 들여다놓는것이다. 그리고 홍도사와 춘파 두사람은 방으로 들어와 앉으며 그의 손목을 잡으려고 다가앉으려다가 맹인이 된 모양을 보고 깜짝 놀라서 말한다.

《아니 이게 웬 일이요? 별안간 장님이 되였으니, 이렇게 되신것을 전혀 몰랐소그려, 응? 의원에게 치료를 잘 받아보면 어떨가요?》

진정어린 동정의 말이였다.

《이 눈이 그렇게 쉬이 고쳐질 눈이 아닌것 같소이다. 먼길에 무사히 다녀오셨으니 다행한 일이오이다. 그래 그 넓고 번화하다는 북경에서 좋은 구경이나 많이 하고 오셨소이까?》

홍도사는 이 말을 받아서 새삼 존경을 담은 어조로 《그러지 않아도 송석선생에게 신기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찾아왔소. 송석선생이 그려준 그 그림이 나의 모르는 소견으로도 천하에 없는 명화이거니 생각

이야 했소마는 참 희한한 일을 당했소.》 하고는 잠간 숨을 돌리고 부채를 남경상인에게 은 5천냥에 팔게 된 사연으로부터 부채우의 물새가 나래를 펼치고 강물속에 들어가 진주를 물고 나와 세인을 놀라게 한 자초지종을 세세히 이야기한 후 이렇게 말하였다.

《그래서 그 부채를 판것이 여간만 원통하지 않았었소. 참으로 우리 나라 국보 하나를 내다가 팔아버린셈이였소. 하지만 기왕 팔았으니 어찌하리까. 참 원통한 일이요.》

이미 잊어버리다싶이 한 자기 그림에 대한 소식을 들은 송석은 기쁘기도 하고 원통하기도 하였다. 비록 만리 이역에 가서라도 비로소 자기 그림이 평가되고 신묘한 조화를 부려 커다란 파문까지 던졌다지 않는가. 그러나 그것은 어둠을 스쳐 지나가는 한오리 빛처럼 순간적인 것이였다.

이내 송석의 가슴에는 비통한 심정이 밀려들었다.

송석은 자기의 온갖 심혈과 재간을 쏟아부어 경지에 오르게 한 회심의 화폭을 남의 나라 장사치의 손에 넘어가게 한것이 자기 불찰인것같이 생각되여 통분함을 금할수 없었다.

《나의 생각도 짧았소이다. 천하명화를 내 손으로 내주어 남의 나라에 판셈이니 내 눈이 먼것이 우연치 않소이다. 어찌 천벌을 안 받겠소이까.》 하고 송석은 긴 한숨을 짓는것이였다.

그 한숨에는 훌륭한 명화를 팔아버린 원통함과 함께 다시는 화필을 들지 못하게 된 기구한 자기 운명의 절통함이 서리여있었다.

송석의 그림에 대한 이 소식은 국내에 퍼져 많은 화가들과 그림을 청탁하는 손님들이 찾아왔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었다.

5천냥의 은덩이가 굴러들어온 지금 송석은 여생을 살아갈 걱정을 안해도 되였다. 그러나 그 많은 은덩이보다도 자기 손으로 그린 한장의 그림이 더 그리웠다. 송석의 여생은 그렇게 고독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민족의 슬기를 만리 이역에까지 떨친 송석과 그의 명화에 대한 전설적이야기를 전하고있다.

(끝)

유모아

도적과 게으름뱅이

옛날에 한 도적이 몰래 남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주인은 침대에 누워 까딱하지 않았다.

깊이 잠들었는지 아니면 죽었는지…

그런데 집이 하도 가난하여 아무리 둘러봐야 가져갈만 한 물건이 없어 문을 열어놓은채로 도로 나가버렸다. 이 순간 죽은듯이 누워있던 주인이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다.

《다 봤으면 문이나 좀 닫고 가오.》

도적이 돌아서며 오히려 꾸짖었다.

《당신이 그렇게도 못사는게 우연한 일이 아니구려!》

그러자 집주인이 코웃음치며 말했다.

《벌어놓았댔자 당신 같은 사람들이 도적질해가겠는데 그럴바엔 차라리 그냥 누워있는게 낫지.》

주 소 : 평 양 통 일 신 보 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 편 집 위 원 회